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호프 프리퍼드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089호

Monday, August 26, 2024 A

트럼프, 케네디 주니어 지지 업고 “승기 잡는다”



SPECIAL STORY

전국 지지율 8.7%를 확보하고 있는 무소속 대선후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이하 케네디)가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공화당 대선 주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대선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전당대회 효과로 지지율 상승세를 기대했던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캠프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수의 선거 전문가들은 “케네디 후보 지지자들 중 60%만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 줘도, 대선의 향방을 가를 경합주에서는 극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도 흥분을 감추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23일 애리조나 글렌데일에서 케네디 후보와 공동 유세를 펼치며 “(케네디는) 지

지율이 10~16%에 있었다”며 “이번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바비 (케네디 애칭)와 나는 부패한 정치권을 물리치고 이 나라의 통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싸울 것”이라면서 “그의 선거운동을 지지했던 모든 사람에게 이를 위한 연합을 구축하는데 함께 해줄 것을 부탁한다. 우리는 여러분의 투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케네디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 무대에 올라 “여러분은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 대통령을 원하지 않느냐”, “여러분은 미국을 전쟁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 나라의 중산층을 재건할 대통령을 원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안전한 먹거리 및 만성 질환 문제, 외교 정책에서 네오콘 종식 등을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1963년 총격으로 피살된 존 F. 케네디(JFK)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1968년 대선에 나서 당내 경선 도중에 총격에 목숨을 잃은 로버트 F. 케네디 전 상원 의원의 아들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는 조국을 위해 봉사하던 아버지와 삼촌을 잃었으며 바비 자신도 선거운동 중에 안전에 위협을 받았으나 해리스 바이든 정부는 그의 보호 요청을 거부했다”면서 “나는 이를 기리기 위해 당선되면 암살 시도에 대한 독립적인 새 대통령 위원회를 설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위원회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과 관련해 남아 있는 모든 문서를 공개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면서 “그들은 지난달 (자신에 대한) 공격에 대한 엄격한 검토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용 기자 >> 2면 ‘트럼프’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헤즈볼라 선제타격...중동 확산 우려

이 “영토 테러 조짐에 방어 공격” 헤즈볼라, 드론·로켓 320발 반격 이란 등 ‘저항의 축’ 추가 개입 촉각

이스라엘이 분토를 노린 공격을 준비 중인 레바논의 친 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를 선제 타격하고, 헤즈볼라가 드론 및 로켓 공격으로 맞받았다. 헤즈볼라는 2006년 이스라엘·레바논 전쟁 이후 이스라엘을 상대로 최대 규모의 공격에 나섰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최고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아 암살에 대한 본격적인 보복에 나서지 않은 이란과 하마스-헤즈볼라-후티(예멘) 등 친이란 ‘저항의 축’이 추가로

무력 공격에 나설 경우 중동전은 견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레바논 내 헤즈볼라 군 관련 타격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다니엘 하가리 IDF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IDF는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미사일과 로켓을 발사할 준비를 하는 헤즈볼라 테러조직을 포착했다”며 “이러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자위방위 행위의 일환으로 레바논의 테러 목표물을 공격한 것”이라고 밝혔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공습은 이스라엘 북부와 맞닿아 있는 레바논 국경 5km 이내 지역에서 대부분 이뤄졌다.

이스라엘은 이번 조치 가 선제 타격(preemptive

strike)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IDF는 “테러단체 헤즈볼라가 오늘 아침 발사체를 이용해 벤투리온 국제공항을 비롯해 이스라엘 중부 지역까지 타격하려 했다”며 “레바논 남부에 대한 선제 공습으로 이런 시도를 무산시켰다”고 밝혔다. IDF는 “100여 대의 전투기를 동원해 수천 기에 달하는 레바논 내 로켓 발사대를 동시에 타격했다”고 설명했다. IDF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약 6000발의 로켓과 드론 공격을 계획했다고 밝혔다고 이스라엘 언론이 전했다.

헤즈볼라는 즉각 대규모 반격에 나섰다.

장윤서·백일현·박형수 기자 >> 2면 ‘이스라엘’으로 이어집니다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북부 상공에서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공격용 드론(작은 사진)이 이스라엘 공군에 격추당했다. 이스라엘군이 이날 새벽 레바논 내 헤즈볼라 기지 등을 선제 공습하자,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로켓 320여 발을 발사하고 드론을 날려보냈다. (AFP·EPA=연합뉴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재입
순금 아가 플랜지링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데이빗막스

www.davidmarkslaw.com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헤즈볼라 6000발 로켓 공격 사전포착”... 15분 전 먼저 때렸다

이스라엘, 레바논 국경 5km내 공습
네타냐후 “헤즈볼라 드론 모두 격추”
헤즈볼라 “보복 첫단계 성공” 주장
이란도 보복 나설 뻔 중동 무한확전

▶ 1면 ‘이스라엘’에서 계속
이스라엘이 선제 타격 사실을 공식 발표한 직후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대규모 드론 및 로켓 공격을 가했다”며 “이는 지난달 레바논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최고사령관 푸아드 슈크르가 사망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명시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 메론 공군기지와 골란고원을 포함해 이스라엘 군사기지와 막사 11곳에 320여 발의 카투사 로켓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헤즈볼라는 “다수의 적 시설과 막사, 아이언돔 플랫폼, 추후 25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안보 내각을 주재하는 네타냐후 총리(가운데), [신화=연합뉴스]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거대한 불꽃과 연기가 치솟는 레바논 국경지대. 이날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관련된 목표물을 공습하는 이스라엘군 전투기가 조명탄을 터뜨리고 있다.



4시45분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의 ‘첫 단계’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며 추가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발표할 특수 군사 목표물을 겨냥했다”고 설명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안보내각을 소집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내각 회의에서 “이스라엘 중부의 전략적 목표물을 향해 발사된 헤즈볼라의 드론을 모두 격추했다”고 말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향후 48시간 동안 전국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반격 이후 추가적으로 레바논 남부를 공습했다고 밝혔다. 헤즈볼라의 로켓 발사대 여러 곳을 표적으로 했으며, 앞선 선제 타격 때보다는 저강도 공습이었다고 설명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나다브 쇼샤니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방공망 아이언돔을 가동해 헤즈볼라의 공격을 막아내는 영상이 X(옛 트위터)에 올라오기도 했다.

피해 규모가 한정적이라면 양측 모두 추가 조치에는 신중할 수 있다. 특히 이스라엘 주권에서 선제 타격을 결정할 건

이스라엘이 명분과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스라엘 당국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서부 연안 도시 헤르츨리아 인근 글릴롯 기지를 공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보도했다. 글릴롯 기지에는 IDF 정보부대와 이스라엘의 대외 정보기관 모사드의 본부가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의 선제 타격은 이날 오전 5시 텔아비브 방향으로 발사되도록 설계된 레바논의 미사일 발사대를 겨냥한 것”이라고 전했다. 선제 타격은 직전인 오전

4시45분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의 ‘첫 단계’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며 추가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미 나데르 레반트전략문제 연구소장은 “(이스라엘의 공습은) 전 지역을 본격적인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잠재력이 있다”며 “작전 범위와 강도 면에서 큰 확대를 알리는 신호”라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헤즈볼라 입장에서 반격의 명분을 확보한 것이어서다. 핵심은 결국 저항의 축을 이끄는 이란의 선택이다. 이란은 자국에서 하마스 지도자 하나

야가 암살된 지 한 달 가까이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는 “네타냐후 총리는 레바논으로 전선을 확대하며 국내 정치적 이점을 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확전 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이란은 보복공격을 예고하면서도 사실상 직접 공격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스라엘은 이란의 반격이 전면전 수준이 될 수 없다는 판세를 읽고 친이란 세력을 향해 접을 날리는 수준의 영리하고 노회한 도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선을 앞두고 휴전협상 진전에 여념이 없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면서도 긴장 완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스라엘은 선제 타격 전후로 휴전 협의를 이어갔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을 위한 고위 협상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하마스는 협상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장운서·백일현·박형수 기자

▶ 1면 ‘트럼프’에서 이어집니다

한편 케네디의 트럼프 지지 선언에 대해 민주당 측은 애써 그 의미를 축소시키는 모양새다. 해리스 후보 측은 “케네디 효과는 실질적으로 미미할 것”이라며 “케네디 가문의 진보적 가치관을 성원했던 기존의 지지자들이 이미 우리 쪽으로 넘어 왔기에 케네디 후보가 (캠페인을) 중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차범위 내에서 초박빙의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케네디 지지표’의 향배가 대선에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대한 대책 수립에 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세용 기자

“트럼프, 연방 낙태금지법안 비토할 것”

미국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사진) 연방 상원의원은 25일 여론의 못매를 맞고 있는 자신의 ‘캣 레이디’ 발언과 관련,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거듭 반박했다. 밴스 의원은 이날 방송된 NBC 방송 ‘미트 더 프레스’ 인터뷰에서 해당 발언을 후회하느냐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해 유감”이라며 “민주당과 카멀라 해리스가 이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내가 냉소적 발언을 했지만, 많은 민주당원들이 의도적으로 이를 오도하고 있다”며 “나는 단지 우리

나라에서 반가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를 바꾸고 싶다는 의도에서 한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이어 “많은 젊은 여성들이 아이를 원하든 원치 않든 그들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나는 다만 여성들이 더 많은 선택권을 갖기를 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밴스 의원은 2021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해리스 부통령 등을 겨냥해 “자식이 없는 ‘캣 레이디’(cat lady)들이 사실상 국가를 운영하고 있고, 이들은 미국을 자신의 인생처럼 비참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가 부통령 후보가 된 이후 이 발언

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낙태금지법안이 처리돼 책상 위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낙태 문제는 주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그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과 관련해선 이미 불복 가능성을 내비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우리가 이길 것이고, 매우 좋은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케네디 주니어는 이날 폭스뉴스에 나와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입각과 관련해 약속을 받은 것이 있다는 질문에 “어떤 약속도 없었다”고 단언했다.

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며 그에 대한 호감도 역시 하락하는 모습이다.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도 민주당 전당 대회에서 해당 발언을 소환해 집에 불이 나면 정치 지향에 관계없이 사로부터 구하는 것이 미국의 정신이라며 “만약 그 집이 아이가 없는 ‘캣 레이디’의 집이라면, 우리는 그 고양이를 구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밴스 의원은 무소속 후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것에 대해선 “트럼프와 공화당이 ‘빅텐트’ 정당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

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낙태금지법안이 처리돼 책상 위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낙태 문제는 주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그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과 관련해선 이미 불복 가능성을 내비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우리가 이길 것이고, 매우 좋은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케네디 주니어는 이날 폭스뉴스에 나와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입각과 관련해 약속을 받은 것이 있다는 질문에 “어떤 약속도 없었다”고 단언했다.

워싱턴 날씨 (°F)
8월 26일(월) 89~72

27일(화)	92-74	☁	30일(금)	85-71	☁
28일(수)	99-76	☁	31일(토)	88-72	☁
29일(목)	94-71	☁	1일(일)	87-69	☁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싱글홈 지하 렌트 월아웃 \$2,100
BURK 타운홈 3층 END UNIT \$660,000 SOLD

종업원 상해보험 보험료의 10%를 돌려 드립니다

보험료 10% Return 프로모션

- Audit 완료 9개월 후에 보험료의 10% 지급
- Audit 및 할인된 보험료 기준: \$1,000 이상만 해당

스마트보험 BY SOLOMON AGENCY
703.639.0882

AmTrust FINANCIAL
10% Flat Dividend
* The 10% Flat Dividend is offered by AmTrust Financial.

견적문의는 휴대폰으로 왼쪽 QR코드를 스캔해서 보내주시면 신속한 견적이 가능합니다.
SCAN ME

VA Office 7535 Little River Turnpike, Suite 204,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1404 N Rolling Road, Catonsville, MD 21228 (구. 소망치과 위치)
SMART.SOLOMONUS.COM

어린이들이 높여 부른 '뜨거운 나라사랑'

극동방송 주최 '나라사랑 음악회'
케네디 콘서트 홀 2500석 가득 메워

대한민국에서 온 700여명 어린이들이
한 목소리로 부른 '나라사랑'이 워싱턴
에 메아리로 울려 퍼졌다.

극동방송 주관으로 지난 23일 워싱
턴 DC 소재 케네디 센터에서 개최된 '
나라사랑 음악회'에는 한국과 미국의
정재계 인사 등 2,500여명이 참석하며
성황을 이뤘다.

행사 참석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는 "순수
한 어린이들의 공연을 통해 워싱턴에
모인 전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의 미
래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이며,
교포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그리고 자
라나는 다음세대에게는 대한민국 국민
으로서 자긍심과 한반도의 평화통일
에 대한 염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행
사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 날 공연에는 서울, 울산, 광주,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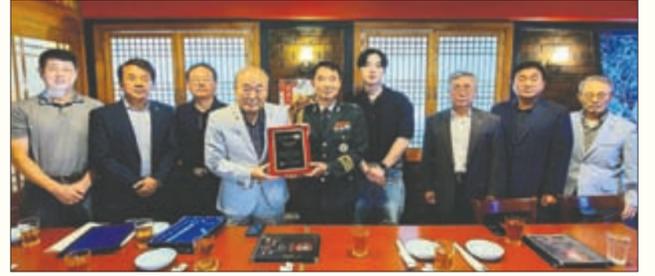


케네디 센터 무대에서 어린이 합창단이 피날레를 장식하고 있다.



북, 전남동부, 포항, 영동 그리고 창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연합한
700여명 단원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했

다. 합창단은 완벽한 의상과 울동으로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며
애국가와 미국가를 불렀고, 한국의 대
표곡 아리랑, 미국의 포크송 메들리와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찬송가 등을 번
갈아 합창했다. 참석자들은 "광복79년,
평화통일, 6.25 참전 용사들에 대한
마음을 완벽하게 표현한, 한미동맹 의
식을 한단계 더 고취시킨 수준높은 무
대였다"고 입을 모았다.



김인철 회장이 이임하는 이경구 국방무관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재향군인회, 이경구 국방무관 송별식”

재향군인회 미동부지회(회장 김인
철)는 지난 21일 애난데일 소재 장원
반점에서 이경구 주미대사관 국방
무관의 송별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헌신하고 한인들의 안
보의식 강화에 노력해줘 감사 드리
며 더불어 재향군인회에 보여준 관
심과 정성에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
했다.
이에 재향군인회는 이 국방무관
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이 국방
무관으로부터 그간의 협력에 대한
감사로 액자를 선물받으며 훈훈함
을 자아냈다.

김윤미 기자

전국 최고 커뮤니티 칼리지는 ‘메릴랜드’

무료 학비 정책 높은 점수 받아
노바대학은 146위에 그쳐

리였다. 또한 졸업생의 학자금 연체 비
율도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졸업
률은 27%로 상당히 높았다.

메릴랜드에 소재한 커뮤니티 칼리지가
전국 최고 등급을 받았다.

이밖에도 캐롤 커뮤니티 칼리지가 29
위, 하워드 커뮤니티 칼리지가 32위, 프
린스 조지스 커뮤니티 칼리지가 36위,
세실 칼리지가 43위를 기록했다. 메릴
랜드 내 커뮤니티 칼리지는 무엇보다도
무료 학비 정책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크레딧평가기관 월렛허브의 최근 보
고서에 의하면, 메릴랜드에 소재한 커
뮤니티 칼리지가 종합평가 1위를 기록
했다.

전국 650여개 커뮤니티 칼리지를 대
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메릴랜
드 소재 커뮤니티 칼리지 5곳이 상위
55개 칼리지에 포함됐다. 몽고메리 카
운티 칼리지에 위치한 몽고메리 칼리지는
10위를 기록했다. 몽고메리 칼리지는
졸업생의 첫 중간연봉이 4만9천달

버지니아의 커뮤니티 칼리지는 전국
50개주 중에서 26위에 머물렀다. 버지
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 위치한 노던
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노바대학)
는 146위를 기록했다. 전국 2위는 뉴 맥
시코, 3위는 코네티컷 이름을 올렸다.

김윤미 기자



페어팩스 카운티 경제자문위 ‘뒷걸음질’?

이름 바꾸고 외부 위원 인원 감축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가 기존의
경제자문위원회(EAC)를 해산하고 경
제기획위원회(CEO)를 설립한 예정이
지만, 주민 참여 기회를 크게 제약할 것
이라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최근
전체 표결을 통해 EAC 해산과 CEO 창
설을 결의했으며 오는 9월17일 CEO가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하지만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1992년
출범해 카운티 경제계 인사들의 의견
수렴 창구역할을 했던 EAC를 해체한
배경에 대해 석연찮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각에서는 EAC가 세금 인상과 조
닝 변경, 비즈니스 인허가 정책 등에
걸림돌로 작용하자 법률을 개정해 입
맛에 맞는 인물들로 꾸리기 위해 새로
운 위원회를 창설했다는 지적을 하고



페어팩스 카운티 감독위원회 회의

있다.
실제로 EAC 민간 위원 등은 모두 70
명이 넘었으나 CEO는 29명으로 대폭
줄어든다.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위원을 소수정
예화해서 미래의 불확실한 경제상황
을 신속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사정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CEO에는 경제계 각 분야별로 투표
권을 지난 상임위원 12명을 각 지구 대
표로 임명하고, 수퍼바이저 위원장 한
명과 수퍼바이저 9명, 그리고 투표권이
없는 7명의 지역 경제계와 교육계 인사

로 총담할 계획이다.
외부 인사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해
주민 목소리를 더 적게 들겠다는 목적
이다.

실제 EAC와 CEO의 설립 목적은 거
의 동일한데, CEO에는 상업용 부동산
과 각 산업계 관련 세수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확충 계획을 입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카운티 정부가 세금을 늘리거나 식
당세 등 새로운 세목을 추가하는데
CEO를 둘러싸 세우려는 의도가 다분
하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
이다.

김옥채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오니!
보험에 관한 일은 선택-오니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문&박
1984년 창립
합동법률사무소

〈문&박 합동법률사무소〉는 1984년 이래로 지난 40년간 워싱턴 한인사회와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교육위원회, 도시개발위원회, 인권위원회, 소수계학생문제 자문위원회 등 지역 주류사회에서도 적극 활동하며, 한인동포 여러분을 위해 정확하고 친절한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지식 오랜 경험



문일룡 변호사

- Harvard 대학
- William and Mary 법과대학원
- 페어팩스 카운티 현 6선 교육위원
- 페어팩스 카운티 Planning Commissioner(전)
- 버지니아 주지사 도시정책 자문위원(전)
- VA 변호사 자격



박상근 변호사

- 서울 법대, 대학원 졸업
- George Washington 법대 법학 석사
- 전 Fairfax County 인권위원회 부의장
- 전 버지니아 주의회 이민난민 정책위원
- 전 북미주 기독교기업연합회 총연합회 회장
- VA, MD, DC 변호사 자격



우시영 변호사

- Georgetown 법대 법학 석사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 주요 일간지 이민 법률 상담 변호사
- 전 아태법률구조센터(APALRC) 법률 통역
- 전 LG에서 채권 및 담보 업무 담당
- VA, NY 변호사 자격

취급 업무 민/형사 소송, 교통사고, 학생/취업/연수/종교/투자 비자, 각종 이민, NIW, 추방재판/면제, 손해배상, 가정법, 사업체/부동산 매매, 영리/비영리 회사설립, 임대차 계약, 고용 관계, 유서 작성, 상속 수속, 이혼, 입양 등

문&박 합동법률사무소 대표전화 **703-941-7395** www.moonparklaw.com
7617 Little River Tpke., Suite 800 Annandale, VA 22003

뱅크오브호프 장학생 선발 60명에 각 2500달러 지급

뱅크오브호프가 '2024 호프 장학생' 선발을 마쳤다.

은행 측은 22일 9개주에서 호프 장학생 6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4년 입학 예정인 장학생들에게는 1인당 2500달러의 장학금이 전달된다. 총 장학금 규모는 15만 달러.

장학금 수여 소식은 개별 통지됐다. 지역별 장학생 수는 캘리포니아 34명, 뉴욕 7명, 뉴저지 3명, 일리노이 4명, 텍사스 5명, 워싱턴 4명, 버지니아 1명, 조지아 1명, 앨라배마 1명



이다. 2001년 시작된 호프 장학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14년간 1600명에게 300만 달러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케빈 김 회장은 "올해는 우수한 지원자들이 많아 선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장학생 모두 우수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원희 기자

한국벤처 진출 지원... 코리아콘퍼런스 개막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코리아 콘퍼런스 행사 하루 전날인 22일 MDR 클럽 출범식이 리비에라 컨트리클럽에서 진행됐다. 출범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오늘 마리나델레이 요트 행사 한국 5개 첨단 스타트업 참가 22일엔 자문단·후원사 출범식

한국 스타트업을 미국 내 투자자들과 연결하는 '코리아 콘퍼런스(대표 제니주)' 본행사가 오늘(23일) 개막한다.

본지 후원으로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코리아 콘퍼런스 행사는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22일 퍼시픽 팰리세이즈에 위치한 리비에라 컨트리클럽에서 MDR 클럽 출범식이 열린데 이어 오늘 LA마리나델레이 요트의 요트 위선상에서 본행사가 열린다.

MDR 클럽은 전년도 행사에 참여한 업체가 올해 참가한 업체들을 상대로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공유하고 멘토링을 하는 모임이다.

제니 주대표는 "단타성이 아니고 지속적이면서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벤트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코리아 콘퍼런스의 목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MDR 클럽이다"라며 출범식의 의미에 대해서 밝혔다.

여러 스타트업들이 네트워킹할 수 있는 장을 만들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게 되고 이를 통해 '릴레이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것이 주대표의 설명이다.

본 행사에는 한국의 스타트업은 물론 자문단과 후원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프리미어리그(EPL) 첼시 구단의 호세 펠리시아노 구단주, 우주항공업계 전문 글로벌 투자사 '오디세이'의 제이슨 코웨이 공동창업자, 글로벌 최상위 부유층을 위한 최고급 멤버십인 '이든 클럽'의 톰 로린스 회장, 이탈리아 피렌체를 대표하는 메

디치 가문의 로렌조 메디치 왕자, 인도네시아 국민 기업 '리포 그룹'의 마이클 리아디 고문 등의 자문위원단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코리아 콘퍼런스에는 ▷물류 혁신을 위한 스타트업인 아워박스(OurBox) ▷스마트폰 마이크만을 이용해 수면 상태를 측정 분석해주는 에이슬립(Asleep) ▷초 몰입형 가상현실을 만들어가고 있는 더투에이치(The2H) ▷음악 분야에서 첨단 기술로 혁신을 이끄는 콘텐츠 테크놀로지스(Contents Technologies) ▷혈당검사 혁신 기술을 보유한 엠비트로(Mvitro) 등의 한국의 혁신 스타트업이 함께한다.

본 행사에서는 스타트업의 기업 소개와 네트워킹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글·사진=조원희 기자

어퍼머티브 페지 MIT 아시안 입학 증가

47%로 전년 대비 7%p 상승

흑인·히스패닉·백인 모두 줄어

소수계 우대 대학 입학제도인 '어퍼머티브 액션' 위한 판결 이후 처음 맞이하는 입학 시즌인 올해, MIT의 아시안 입학 학생 비율이 상승했다.

21일 MIT가 공개한 2024~2025학년도 신입생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학년도 아시안 입학생 비율은 47%로 2023~2024학년도 40% 대비 7%포인트 증가했다. 즉 아시안 학생이 신입생의 약 절반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반면 아시안 학생 외 유색인종 입학생 비율은 줄었다. 이번 학년도 흑인·히스패닉·아메리카 원주민 및 태평양 섬 주민 신입생 비율을 합한 수치는 약 16%로, 최근 몇 년간이 비율이 평균적으로 약 25%를 유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낮아졌다.

▷흑인 신입생 비율은 지난 학년도 15%에서 5%로 ▷히스패닉은 16%에서 11%로 줄었고, ▷백인 학생 비율도 38%에서 37%로 소폭 감소했다.

MIT 입학처는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은 미적분과 물리학, 컴퓨터 과학 등을 가르치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인해 백인과 아시안 지원자들이 차별받았다'며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공정한 입시를 위한 학생 연합(SFA)'은 "이 데이터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번 학년도 MIT 입학생들은 인종이 아닌 뛰어난 학업 및 과외활동 성취도에 따라 합격한 것"이라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무협 '한미 동남부경제협의회 총회' 개최

한국무협협회는 23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주애틀랜타총영사관, 대한무협투자진흥공사(코트라) 애틀랜타 무역관, 미 동남부 6개 주정부와 공동으로 '한미 동남부 경제 협의회 총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무협협회 이인호(사진) 부회장, 서상표 주애틀랜타 총영사, 앨런 맥네이어 앨라배마주 상공장관, 스티브 맥홀터 테네시주 경제공동체개발 장관, 해리 라이시 사우스캐롤라이나 상무장관 등 양국의 주요 인사와 기업인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는 현지 진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동남부 6개 주는 조지아, 앨라배마,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



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등이다. 이 행사는 1986년부터 2008년까지 개최됐다가 이번에 16년 만에 재개됐다.

이인호 부회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기업 600여개사가 약 277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해 미국은 우리나라의 제1위 투자 대상국이 됐다"며 "앞으로도 주정부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등 한국 기업의 미 동남부 진출 동향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및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트럼프 60분 말한 영상, 한 줄로 요약

한국 인공지능(AI)이 일했다 40개국 언어 비디오도 '똑똑' 클릭 한번에 원하는 이미지도

시험 문제 풀어주는 정도만으로도 감지되지만, AI(인공지능)가 갈수록 똑똑해지면서 우리 일상의 소소한 니즈를 깨알같이 채워주고 있다. AI프렌즈는 '내가 AI에 뒤처지고 있나?', '그래서 AI 어떻게 쓰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드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상황별 AI 툴과 상세한 이용법을 친절히 소개해준다. 10부작 중 첫 번째 시리즈에선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바로 일상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AI 툴 네 가지를 소개한다.

①유튜브, 논문 등 워드지 똑똑 요약하는 '릴리스AI'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번 마이크를 잡았다 치면 60분은 거뜰히 연

설을 이어간다. 관심은 가지만 이 긴 연설 다 듣고 있을 시간은 없을 때,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한 거야?'가 궁금하면 릴리스AI에 들어가면 된다. 궁금한 유튜브 링크를 입력하거나, 논문 원문을 올리면 몇 분 만에 똑똑 요약해준다. 원하면 이 내용으로 블로그 포스트도 작성해준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파워블로거가 될 수 있는 것. 이 일 잘하는 AI는 한국 스타트업 릴리스AI가 지난해 출시한 AI 툴이다.

②아랍어 구사하는 내 모습이 궁금하다면 '헤이젠'

40여 개국 언어 영상을 클릭 한번에 만들 수 있는 헤이젠도 인기를 끄는 중이다. 이 툴은 한국어 하는 영상 하나만 올리면 AI 기술로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등 여러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영상을 쉽게 제작할 수 있다. 헤이젠은 중국계 창업자들이 만들었지



'렌즈고'에서는 픽사 스타일, 지브리 스타일, 1920년대 공포 영화 스타일, 반 고흐 스타일 등 다양한 스타일로 바꿀 수 있고, 새로운 그림을 만들 수도 있다.

[중앙포토]

만,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으로 본사를 옮기면서 서비스를 키워왔다.

③원하는 스타일의 그림으로 바꿔주는 '렌즈고'

'지브리 스타일', '1920년대 공포영화 스타일' 사진을 만들고 싶다면? 느낌이 알지만 구사하기 힘들었던 이미지를 클릭 한 번으로 만들 수 있는 렌즈고도 눈여겨볼 만하다. 텍스트만 입력하면 고품질의 그림과 영상을 만들어준다.

하선영 기자

박공석 척추신경전문병원

척추 한방 클리닉

교통사고/척추통증전문

첨단 물리치료 시설 및 X-Ray 시설완비

진료 안내

- 교통사고 관련 후유증
- 두통, 목, 허리 디스크, 안면 신경마비
- 각종 신경마비 및 근육, 관절 통증 질환
- 한방 치료 (침), 마사지

Dr. 박공석 척추신경전문의
한의원 (NCCAOM)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운동화, 물 한통이면 준비 끝. 걷기 좋아하시는 분 형사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박공석 척추신경전문병원

Tel: (703) 354-8686 | 전화예약 바랍니다.

• 애난데일 중앙일보 3층 •
7023 Little River Tnpk., Suite 330, Annandale, VA 2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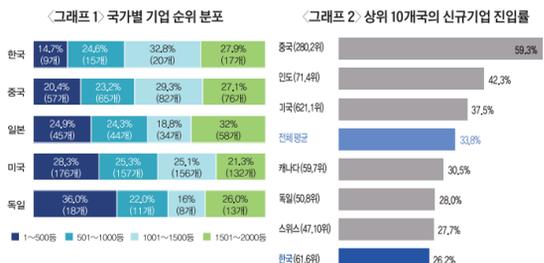
포브스 '올해 2000대 기업' 에 한국 총 61곳

삼성전자 21위·현대차 93위
미·중·일·인·영이어 6번째 많아
전체 순이익 649억불... 12위권

경제지 포브스가 선정한 2024년 2000대 기업에 한국 기업은 총 61곳이 포함됐다.

상위 100위 안에 든 곳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2곳이었다.

지난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포브스가 발표한 '2024 세계 2000대 기업 명단'에 포함된 한국 기업은 61곳이



다. 미국·중국·일본·인도·영국에 이어 6번째로 많은 수다. 한국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이름을 올린 기업은 삼성전자로 전체 21위다. 이어 현대차 93위, 기아가 234위에 올랐다. 해당 명단은 기업의 매출·순이익·자산·시가총액을 종합해 순위를 매기는데, 글로벌 시장

내 기업의 위치를 보여주는 종합 지표를 뜻한다.

한국 기업 대부분은 2000대 기업 중 하위 순위에 머물렀다. 61곳 중 9곳(14.7%)만 상위 500등에 포함됐다. <그래프 1 참조>

이는 중국·일본·미국뿐 아니라, 한국보다 순위에 든 기업 수가 적은 독일(50곳) 보다도 낮았다. 반면 1001~2000등에 들어간 기업의 비중은 60.7%로 주요국 중에 가장 높았다.

한국 기업 61곳 중 10년 전인 2014년 명단에는 없었던 신규 진입 기업은 16곳이었다. 비율로는 26.2%다.

이는 전체 2000대 기업의 신규 진입률 33.8%(676곳)보다 낮은 수치다. <그래프 2 참조>

순위로도 10개국 중 7위였다. 평균보다 신규 진입률이 높은 국가는 중국(59.3%), 인도(42.3%), 미국(37.5%)이다.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순이익도 한국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등재 기업의 순이익을 모두 합한 전체 순이익 규모는 649억 달러로, 전체 12위로 떨어졌다.

대한상의 측은 "첨단 산업 경쟁이 치열한 지금, 한 국가가 보유한 세계적 기업의 수는 곧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더 많은 글로벌 스타 기업이 등장하기 위해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지혜 기자

리디아 고, 올림픽 이어 메이저 대회 AIG 여자오픈도 제패

리디아 고(뉴질랜드·사진)가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에 이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 골프 대회인 AIG 여자오픈(총상금 950만달러)에서도 정상에 올랐다.

리디아 고는 25일 영국 스코틀랜드 파이프의 세인트앤드루스 올드코스(파72·6천784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를 묶어 3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 합계 7언더파 281타의 성적을 낸 리디아 고는 공동 2위 선수들을 2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이 대회 우승 상금은 142만5천달러다.

파리 올림픽 금메달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명예의 전당 가



입을 확정 지은 리디아 고는 1월 힐튼그랜드 배케이션스 챔피언스 토너먼트 이후 7개월 만에 투어 21승을 달성했다.

메이저 대회에서는 2015년 에비앙 챔피언십, 2016년 ANA 인스피레이션에 이어 개인 통산 3승째다.

3라운드까지 단독 1위였던 신지애는 이날 2타를 잃고 최종 합계 5언더파 283타, 공동 2위로 대회를 마쳤다.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 릴리아 부(미국)와 세계 1위 벨리 코르다(미국), 인뤄닝(중국)이 신지애와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

중국 쇼핑앱들 미국서 소송전 가열

테무 "공정 경쟁 방해" 제소에
쉬인 "디자인 도용 판매" 반격

중국의 대표적인 쇼핑앱 '쉬인(Shein)'과 '테무(Temu)'가 미국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 법적 분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쉬인이 최근 테무를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쉬인은 지난 19일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테무가 자사의 디자인을 도용하고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이러한 행위를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쉬인 측은 "테무는 매우 저렴한 가격을 약속하며 소비자들 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사용하도록 유도하지만, 제품 가격이 너무 낮아 보 조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판매할 때마다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테무는 판매자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위조품이나 표준 이

하의 상품을 판매하도록 장려해야만 막대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쉬인은 테무의 직원 중 최소 1명 이상이 쉬인의 인기 제품에 대한 거래 기밀과 내부 가격 정보를 훔쳐내 판매자에게 제품을 똑같이 बे끼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쉬인은 테무가 엑스(X·옛 트위터) 플랫폼에 쉬인 사이트처럼 거짓으로 꾸민 사이트 광고를 게재해 이를 클릭한 이용자들이 실제로는 테무 사이트로 유도되게 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면서 해당 사이트를 캡처한 사진을 소송 서류로 첨부하기도 했다.

쉬인이 제출한 80쪽 분량의 소송 서류에는 테무가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의류와 제품 디자인의 사례도 10여개 이상 포함됐다고 CNBC는 전했다.

앞서 테무는 지난해 12월 쉬인이 공급업체들을 "마피아식으로 위협해"



미국서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쉬인과 테무. [로이터]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보다 먼저 양사는 반독점 금지법 위반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상대방을 제소했다가 지난해 10월 소송을 서로 취하하기로 합의했는데, 몇 주 지나지 않아 다시 소송전을 시작해 법정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쉬인측 주장에 대해 테무측은 "수많은 지식재산권 소송에 파묻혀 있는 쉬인이 자신들이 반복적으로 고소당한 바로 그 행위를 놓고 타기업들을 허위로 비난하고 있다. 그 뻔뻔함이 믿기 어려운 정도"라고 역공했다.

운동화에 하이힐... 스피스 화제 모두 수작업, 가격 395~595불

가능성 속옷 브랜드 스펜스가 하이힐 스니커즈를 출시했다.

22일 CBS뉴스에 따르면, 스펜스는 스틸레토 힐과 스니커즈를 결합한 '스닉스(사진)'를 공개했다.

이 신발은 스페인에서 수작업으로



제작되며, 한 켤레를 완성하는 데 평균 4시간이 소요된다. 나파 가죽과 이탈리아 메쉬 소재로 만들어졌다.

출시된 제품은 더 블랙, 더 아 이콘, 더 테퍼 세 종류로 각각 더블 스트랩, 와이드 스트랩, 싱글 스트랩으로 차별화된다. 색상은 하얀색, 검은색,

빨간색, 초록색, 실버 등 다양하다. 가격은 한 켤레당 395달러에서 595달러 사이다.

스펜스의 창업자 사라 블레이크리

는 "기존 하이힐이 가진 발가락 압박, 발의 아치 지지 부족, 불균형적인 무게 분포 등 세 가지 주요 문제점을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정하은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자산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유자도 행복해집니다
주책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융자는 그린웨이 홈론 **배준원** 융자에 맡겨 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703.868.7147
Jun@gwhomelending.com
(NMLS# 178471)
센터빌 오피스 토요일도 오픈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1시 무료상담)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마마트 건너편 위치)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장금(미라조) 빌딩
웨일리노래방
300m
뉴타운홈
미라조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세로지는 뉴타운홈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주세요~

Greenway Home Loans,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SB, Maryland State D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Texas Department of Savings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License Numbers: DC.MLB2501870; MD 2501870; NC.L-219065; VA.MC-7782; TX.2501870; PA.106923; FL.MLD2525; SC.2501870 Greenway Home Loans Inc. NMLS# 2501870 www.nmlsconsumeraccess.org

“이스라엘 겨냥 로켓·드론 탐지지원…선제공격엔 개입 안해”

미국 정부는 25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집단 헤즈볼라를 향해 선제 타격을 개시한 이스라엘에 방어권을 지지하며 미국은 이스라엘의 방어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헤즈볼라의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방어와 관련해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대화를 나눴다고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이스라엘의 자국을 방어할 권리, 그리고 이란과 역내 이란의 협력·대리 세력의 위협에 맞서 이스라엘의 방어를 돕겠다는 미국의 철통

같은 결의를 재확인했다”고 라이더 대변인은 설명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스라엘의 방어를 지원하기 위해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국의 항모전단 2개에 지역에 계속 남아있으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중동 지역에는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와 시어도어 루스벨트호가 각각 이끄는 2개의 항모전단이 임무를 수행하게 됐다.

원래 미국은 지난 21일 중동 지역에 도착한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전단이 이곳에서 작전을 수행해온 시어도어 루스벨트 항모전단과 임무를 교대하게 할 계획이었다.

이날 앞서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



레바논-이스라엘 국경에서 피어오르는 불과 연기.

관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했다고 발표한 뒤 이날 오전 6시부터 48시간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비상 상황을 선포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날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미사일과 로켓을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

을 인지했다면서 이러한 위협 제거를 위한 자기방어 차원에서 레바논 내 표적들을 타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방 당국자는 미국이 헤즈볼라가 발사한 로켓과 드론의 탐지를 도왔지만 이들 발사체를 격추하거나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에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AFP통신이 보도했다.

당국자는 “미국은 어젯밤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선제공격에 개입하지 않았다. 우리는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헤즈볼라의 공격을 추적하는 데 필요한 정보·감시·정찰(ISR) 지원을 일부 제공했지만, 물리적인 작전은 수행하지 않았다. 그런 작전이 필요 없었

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손 세이벳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미국 고위 관리들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스라엘 측 카운터파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양국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스라엘의 자기 방어를 계속 지지할 것이며 지역 안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찰스 Q. 브라운 미 합참의장은 이날 이스라엘에 도착해 이스라엘군 고위당국자들과 회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러 “본토 공습에 민간인 17명 사상”

우크라이나군의 공습으로 접경 지역인 벨고로드주의 한 마을에서 민간인 17명이 다치거나 숨졌다고 러시아 측이 밝혔다. 로이터·스푸트니크 통신 등에 따르면 바체슬라프 글라드코프 벨고로드 주지사는 25일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으로 민간인 5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했다”고 전했다.

그는 “부상자 중 9명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6명은 중상자로 분류됐다”면서 “다친 민간인 가운데 어린이 3명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벨고로드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남서부 지역이다. 지난 6일부터 우크라이나군이 기습 공격한 쿠르스크와도 인접해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수천명의 우크라이나군과 전투가 벌어지는 쿠르스크에 포와 포병, 미사일을 더 보냈다”고 밝혔다.

또 “오늘 오전 10시30분께 쿠르스크 상공으로 날아오던 우크라이나군 드론 2대를 우리 군의 방공 시스템으로 격추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러시아 접경지 벨고로드의 한 방공호와 경비를 서는 군인.

이 밖에도 40대 가까운 드론과 미국산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미사일 8발 등이 지난 24시간 동안 방공망에 격추됐다고 러시아 국방부는 언급했다.

우크라이나군이 자국 내부 전투에서 상당한 피해를 봤다고도 주장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24시간 사이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손실 규모는 북동부 수미-하르키우 지역과 남부-서부 전선 등을 모두 합쳐 1천90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선마다 우크라이나군은 반격을 시도하다 수차례 격퇴당했고 우리가 깊숙하게 밀어붙이며 공세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전차와 자주포, 곡사포, 탄약고 등을 잃었다”고 전했다.

두쪽 난 운수노조…위원장 ‘트럼프 편’ 조합원은 ‘해리스 편’

미국에서 강력한 노동조합 중 하나인 미 트럭 운전자 노조 ‘국제 트럭 운전자 연대’(International Brotherhood of Teamsters)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두 쪽으로 갈라졌다.

2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노조 위원장 선 오브라이언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편들고 나서자 일반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보도했다.

1903년 설립된 국제 트럭 운전자 연대(이하 팀스터즈)는 현재 트럭과 버스 운전자, 항공사 조종사, UPS 운전자 등이 소속된 조합원 130만명의 노조다.

오브라이언 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찬양하며 팀스터즈가 어느 정당에도 신세를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자신이 좌파로부터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을 것을 알지만 신경 쓰지 않는데 “양 당의 극단주의자들이 내가 이 자리에 서면



민주당 전당대회 참석한 팀스터즈 조합원들.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노조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오브라이언의 연설에 반발한 수십명의 팀스터즈 조합원들이 지난 20일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 무대에 올라 바이든 대통령의 연금 정책에 감사를 표했다.

이 자리에 오브라이언 위원장은 오히려 못했다.

오브라이언에 분노한 조합원들은 메시지 게시판이나 팟캐스트 등에서 그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했다.

게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대담에서 파업에 들어간 노동자들을 해고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분열이 더 거세졌다고 WSJ은

전했다. 이 같은 상황은 이 노조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분열됐는지를 보여주며, 지도부뿐 아니라 일반 조합원 중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고 WSJ은 설명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공화당에 대한 지지를 환영했지만 또 다른 조합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분명 자신들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팀스터즈의 노동자 관련 정책과도 관련이 있다.

무과와 이민에 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은 팀스터즈를 포함한 노동계급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있지만, 그가 대통령일 당시 미 노동관계위원회(NLRB) 공석을 재계 쪽 변호사들로 채운 적이 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노조 친화적인 변호사들을 NLRB 위원으로 임명하고 해리스 부통령에게 노조 결성·단체교섭 촉진 관련 정부 태스크포스 책임자 역할을 맡기기도 했다.

쿠바에 또 ‘블랙아웃’…고질적 전력난에 주민 고통

만성적인 전력난에 시달리는 카리브해 섬나라 쿠바에서 지난해에 이어 한여름 정전 사태가 재연됐다.

2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날 쿠바 전역에서 14시간 이상 전력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백만 명의 주민이 여름철 더위와 습기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산티아고데쿠바, 올긴, 카마케이, 시

엔푸에고스 등에도 주민들이 한동안 암흑 속에 지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전날 저녁에는 아바나 동쪽 마탄사스주(州) 유명 휴양지인 바라테로 관광 리조트와 병원 등지를 제외하고 전력이 들어오지 않았다.

쿠바 전력청(UNE)은 페이스북에 “최대 피크시간에 전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정전에 대비할 것

을 수시로 공개하고 있다. 전날의 경우 “24시간 내내 용량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가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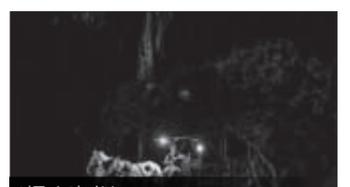
전력청은 이날 역시 최소 7개의 발전소가 고장으로 가동 중단 상태라고 공지했다. 앞서 쿠바에서는 2021년 심각한 경제 및 사회 문제 속에서 식량과 전력 및 더 큰 자유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전례 없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바 있다.

당장 최근에도 지난 3월 산티아고데

쿠바에서는 전력 공급 중단 사태를 성토하는 거리 행진이 이어지기도 했다.

쿠바 정부는 2028년까지 2천MW 규모 전력 생산을 위한 태양광 시설 구축에 나서며 한편 화력발전소에 공급할 원료 수입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쿠바 독립인론 ‘14미디어’는 “쿠바 당국이 최근 마리엘 자유무역지대 내 사무실에서 공금을 횡령한 전력청 직원 등 13명에 대한 기소 사실을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했다”며 “이는 지난해



어둠 속의 마부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기소 내용 공개가) 전력청에 대한 동정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센터빌/첼트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십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형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MD·DC 면허

- 대학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CUCKOO

8월 마지막 여름 혜택

기간 7.30.2024 - 8. 28.2024
조건 기간내 주문 & 8월 내 설치



쿠쿠라서 가능한 혜택!
신제품으로 사은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일시불 구매 최대 30% 할인 & 쿠쿠 신제품 증정

프리미엄 제품 구매시

- 1건 : 30% 할인 + 바비큐 그릴 팬 증정
- 2건 이상 : 30% 할인 + 파워클론 무선 청소기 증정

프리미엄 + 일반 제품 구매시

최대 30% 할인
+ 에어서큘레이터 증정



*일반제품의 경우 할인 가격 다름

렌탈시 다운페이 면제 & 쿠쿠 신제품 증정

- 1건 일반제품 : 바비큐 그릴 팬 증정
프리미엄 제품 : 에어서큘레이터 증정
- 2건 파워클론 무선 청소기 증정
- 3건 이상 파워클론 무선 청소기 +
에어서큘레이터 증정



쿠쿠 시그니처 정수기 마지막 특별 할인

렌탈 계약시

다운페이 면제 +
에어서큘레이터 증정
*렌탈 건수에 따라 다름

일시불 구매시

인상전 가격과
추가 할인 혜택까지!



CP-P011G

신제품 안마의자 런칭 이벤트

4D 제품 \$2,000할인 + 파워클론 무선 청소기 증정

일시불

최대 \$2,000 할인

렌탈시

다운페이 \$500 할인



*3D제품 할인율과 사은품 다름

롯데마트 Ellicott City 410-750-8011
리빙스토리 Centreville 703-975-1313

H Mart Annandale 240-595-2257
힐링마을 Ellicott City 443-878-9010

-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프리미엄 제품 CP-SN102HW, CP-TN100S/DS, CP-P011T/G, CP-QN1401SW, SP-KN501HW, CP-FN601HA, CP-FR601HW, CP-FR601SW, CP-ACR1620SW, CAC-F3010FW, CAC-D2020FW, ND-A0609FG, CBD-AM101W

일반 제품 CP-ADR501UW, CP-MN031W/BK, CAC-C1020FW, CBT-IS1131REW/RRW, CWS-AO201W, CBD-AM106W

사은품은 지역/매장/판매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 해석권 및 결정권은 CUCKOO RENTAL AMERICA INC. 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쿠쿠 렌탈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판매처 및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해당 프로모션 복수 고객 시 사은품 중복 증정, 단 선물당 고객 최대 1개 증정

888.700.0425 | CUCKOORENTAL.COM

-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머스크의 스페이스X, 우주전쟁서 보잉 눌렀다

우주산업 치열한 경쟁

우주비행사 태운 보잉 캡슐 결합 NASA “복귀 캡 스페이스X 이용” 스페이스X, 우주유영 계획도 발표 항공기지 보잉, 우주서 체면 구겨

미국 보잉의 우주선을 타고 우주 탐사에 나선 우주 비행사들이 돌아올 때는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를 이용하게 됐다. 전통적인 항공 기업인 보잉이 체면을 구기면서 민간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new)스페이스’ 시대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위치한 존슨 우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타라이너에 탑승한 우주비행사 부치 윌모어와 수니 윌리엄스는 9월 말 발사될 스페이스X의 ‘크루드래건’을 타고 내년 2월 지구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6월 보잉의 유인우주선 ‘스타라이너’를 타고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향했지만 기체 결합으로 지구로 복귀하지 못한 채 ISS에 머물러 있다. 당초 1주일 체류 계획이 총 8개월가량으로 늘어나게 됐다. 스페이스X는 뉴스페이스에서 한층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2002년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는 지난 2020년 민간 기업 중에는 최초로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하며 10여 차례의 우주비행 임무에 성공해왔다. 오는 26일에는 스페이스X의 ‘드래건’ 캡슐이 민간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우고 우주로 가 민간 최초로 우주유영(spacewalk)도 시도할 계획이다. 우주비행사들은 스페이스X가 새로 개발한 외부 우주선 활동 전용 우주복을 입고 700km(435마일) 고도에서 우주 공간에 나가게 된다.

유인우주선은 국가가 우주 개발의 주체였던 ‘올드(old) 스페이스’ 시절부터 존재했지만 최근의 유인 우주선은 단순히 인간을 우주로 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우주 경제의 시대가 열리면서 우주 관광, 상업적 우주 거주 개발 등의 분야도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이다. 또 우주에서 연구·개발(R&D) 등을 진행할 때 지금까지 자동화된 실험 장비만 실어서 보내는 것보다 사람이 직접 가게 되면 복잡한 샘플 수집 등이 가능해진다. 2035년 우주 경제 규모는 1조8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WEF).

보잉은 우주 사업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NASA에 따르면 스타라이너는 ISS에 도킹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헬륨 누출과 기동 추진기 고장 등의 문제를 겪었다. 경쟁사 스페이스X보다

개발이 더뎠던 데다 기술적으로도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24일 “스타라이너의 미래는 불확실해졌다”며 “보잉은 개발 과정에서 여러 문제로 수년간 약 16억 달러(약 2조1200억원)의 초과 비용을 냈다”고 보도했다.

다만 보잉의 임무 완수 실패를 두고 빌 넬슨 NASA 국장은 “추후 스타라이너의 유인 비행이 다시 시도될 것을 100% 확신한다”고 말했다. 보잉과의 협력이 종료된 건 아니라는 의미다. 앞서 NASA는 2019년 우주 개발 비용을 효율화하기 위해 민간 업체와 협력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보잉·스페이스X와 각각 42억 달러(약 5조5800억원), 26억 달러(약 3조4500억원)의 유인 우주선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우주는 국방 문제와도 직결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곳이기도 하다. 지난해 중국이 유인 우주선 ‘선저우 16호’를 발사하자 미국 국방부는 “미국의 경쟁자들은 우주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약화시키기 위해 조직, 훈련, 장비를 갖추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WP는 “일련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NASA 관계자들이 보잉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공개 칭찬했다”며 “이들은 하나의 우주선이 추락했을 때 러시아의 소유즈를 대체할 다른 미국 우주선이 있길 바란다”고 분석했다. 권유진 기자



스위스 재무 “美부채는 시한폭탄 이달 초 증시 급락은 경고”

스위스 카린 켈러-서터 재무부 장관이 미국과 유럽의 부채 수준이 과도하며 국제적인 금융 안정에 위협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2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켈러-서터 장관은 현지 매체 블리크와 최근 인터뷰에서 프랑스를 예로 들며 “(스위스와 달리 다른 국가들은) 과도한 부채 때문에 더는 행동을 취하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을 보라. 시한폭탄이다. 이달 초 주식시장에서의 작은 급락(mini-crash)은 경고사격”이라며 “침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공포가 표면된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부채 수준은 국제 금융 안정과 스위스에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면 스위스의 정책은 엄격히 이뤄지고 있으며 이 덕분에 코로나19 확산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었다

고 자평했다. 스위스중앙은행(SNB)은 지난 3월과 6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 금리를 1.25%로 내렸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이 9월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 속에 달러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 기준 1스위스프랑 가격은 4월 말 1.09달러가량에서 최근 1.18달러 수준으로 오른 상태다.

한편 켈러-서터 장관은 지난해 크레디트스위스(CS)를 인수한 자국 투자은행 UBS에 자본 확충을 요구한 정부 조치에 대해서는 스위스 경제를 금융 붕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UBS가 본사를 해외에 이전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대형 은행이 있는 게 스위스 경제에 좋다”면서도 UBS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열받은 AI서버에 물 끼얹는다... 엔비디아, 액체냉각 도입

엔비디아가 오는 4분기 출시될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부터 액체냉각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AI 서버의 학습·추론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열을 액체를 활용해 식히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에어컨에서 나오는 차가운 공기를 이용해 서버 열을 식히는 공랭식 냉각이 주로 활용됐다.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25일(현지시간)부터 열리는 반도체 컨퍼런스 ‘핫칩 2024’에서 기존 공랭식에 액체냉각을 더한 새로운 냉각 방식을 공개할 예정이다. 서버에 온수를 통과시켜 열을 식히는 방법이 유력하다. 엔비디아는 새 냉각 방식이 전력 소비를 최대 28%까지 줄일 것으로 본다. 전체 AI 반도체 시장의 90% 가까이 차지한 엔비디아가 본격적으로 액체냉각 방식을 도입하면서 전체 서버 시장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최근 AI 인프라가 폭발적으로 늘어

나면서 데이터센터 전력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기로 열을 식히는 방식은 한계에 이르렀다. 데이터센터의 최적 온도는 20~25도인데, 전체 전력 중 절반 가까이 서버 발열을 잡는 데 사용된다. 액체는 공기보다 열 흡수량이 3000배 이상 많고, 데이터센터의 냉각 효율이 높을수록 성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

물을 주요 냉각매로 활용해 ‘수랭(水冷)식 냉각’으로도 불리지만 물 이외의 다른 액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액체냉각이라는 표현이 점차 굳어지는 추세다. 골드만삭스는 2026년까지 전체 서버에서 액체 냉각 비중이 57%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AI 데이터센터 운영에는 막대한 전력이 소모된다. 미국 스탠퍼드대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오픈AI의 챗GPT와 40회 안팎의 질문과 응답

‘핫칩 2024’서 공개 예정

온수 등 액체 사용해 서버 식히기 공랭식보다 전력 소비 최대 28% ↓ 업계, 냉각유 쓰는 액체냉각도 연구 국내선 LG 칠러, SK 액체냉각 도입



이 포함된 대화를 나눌 때마다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해결하기 위해 생수 한 병(500ml)에 해당하는 물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반도체 업계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냉각유(油)에 서버를 통째로 담가 열을 식히는 액체냉각도 연구 중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서버 설계를 모두 바꿔야 한다. 엔비디아는 지금의 서버 규격을 바꾸지 않고 액체냉각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버 냉각기술은 주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구글·마이크로소프트(MS)·아마존이나 서버 제조기업의 몫이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제 냉각 방식을 비롯한 전체 AI 서버 표준을 엔비디아가 주도하겠다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엔비디아는 지난 3월 신형 AI 칩 ‘블랙웰’을 공개하며 칩 단품이 아닌 AI 서버 완제품까지 통으로 판매

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한 바 있다. 상당수 서버 제조업체와 데이터센터 운영사 역시 엔비디아가 제안한 액체냉각 방식을 따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본다.

세계 데이터센터 액체냉각 시장은 2030년 160억 달러(약 21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액체냉각 전체 설치 비용은 공랭식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서버 성능과 용도에 따라 공랭식·액체·액체냉각 등으로 냉각방식이 다양해질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국내 기업들도 ‘열 받은’ AI 서버를 위한 냉각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LG전자는 데이터센터 열을 식히는 데 활용되는 초대형 냉각기인 칠러 사업에서 3년 내 연 매출 1조원에 도전한다. SK이노베이션의 윤활유 자회사인 SK엔부르는 냉각유를 활용하던 데이터센터 액체냉각 솔루션을 올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다. 이희권 기자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고객만족!
준비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집 파실 분 - 셀러 스페셜!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최고가 판매 전문 노하우

1. 집값 - 셀러레포트
2. 홈 인스펙션/Class A Contractor
3. 지붕, 거러, 인스펙션
4. 히팅/에어컨 인스펙션
5. 터미이트 검사
6. 홈워런티
7. 현재 소유 보험 리뷰
8. 크레딧 리뷰, 관리 방법

모든 비즈니스 장소 찾아드립니다 (매매/리스)
태권도장, 그루밍, 식당, 치킨, 베이커리, 당구장, 바버, 델리, 요거트, 카페, 병원, 치과

센터빌 미용실 \$90,000

재투자 상담
1031 Exchange Specialist

부동산 장기 투자해서 매매시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담되실 때

매일 새벽 “황계실 부동산 생생 정보”를 이메일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세요. kakaotalk ID: Gyeshilhwang email: jkim0825@gmail.com

① 프로협상전문가 ② 공격적 마케팅전문가 ③ 24/7 언제든지 연락가능 ④ 신속 정확한 일 처리 ⑤ 대기셀러/바이어 다수 보유 ⑥ 클로징 후 철저한 지속 관리

부동산 전문 브로커 황계실 571-239-6054
GSHwang Realty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데이케어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소셜 서비스 제공

사랑의 돌봄이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직원 모집

- * 데이케어 드라이버
-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찬들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검토...추석자금 40조 푼다

(10월1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추석 연휴 기간(9월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또 오는 10월 1일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자어 국군의날 수석대변인이 25일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 회 이후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이다.

당정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무·사과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 공급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특히 최근 산지 가격이 하락한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를 할인 공급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엔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기로 했다. 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을 통해 지원된 자금의 대출금리(소진공 3.5%, 중진공 3.4%)는 2.5%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부터)가 25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함께 역귀성객의 KTX·SRT 운임도 30~40% 할인된다. 국민의힘은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지난해 대비 5% 이상 증가 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요청했고, 정부

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내수 진작 등을 위해 이번 건군 76주년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이 결정되면 9월 28일(토)부터 10월 6일(일) 사이에 평일이 사

일	월	화	수	목	금	토
9.22	23	24	25	26	27	28
29	30	10.1	2	3	4	5
6	7	8	9	10	11	12

예정되었던 배터리 인증제는 오는 10월 시범사업을 계기로 연내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선 건축 건물 화재 진압에 필요한 정부 차원의 장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는 한동훈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두 번째로, 한 대표를 포함해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한 대표가 지난 20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로 만나 의정 갈등 해법을 논의한 사실이 이날 뒤늦게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비공개로 합의된 만남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흘려 다소 유감"이라며 "한 대표와 여당이 복잡한 사태의 본질을 세심히 살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을 설득해 주길 기대한다"고 썼다.

윤지환 기자

여야 다시 '30%대 30% 싸움'...중·수·청 잡을 추석전쟁 시작

(중도·수도권·청년)

한국갤럽의 20~22일 전화면접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2%,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1%로 박빙이었다. 19~21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전국 지표조사(NBS)에서도 양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1%, 민주당 29%로 팽팽했다. 정치권에선 "양당 지지율이 '30% 대 30% 싸움'으로 막상막하였던 4월 총선 직후로 회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결과는 양당 중 어느 한쪽에 확실히 마음을 열지 않는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층)의 출렁대는 민심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수도권 민심을 예로 들면, 한 달 전 국민의힘이 8%포인트 앞섰던 갤럽 여론조사(국민의힘 35%, 민주당 27%)에선 서울(국민의힘 33%, 민주당 24%)과 인천·경기(국민의힘 34%, 민주당 31%) 모두 여당이 근소하게 앞섰다. 하지만 지지율 격차가 1%포인트로 좁혀진 최근 갤럽 조사에선 서울(국민의힘 33%, 민주당 35%), 인천·경기(국민의힘 28%, 민주당 31%)에서 반대로 민주당이 오차범위 내 우위였다.

중·수·청 유권자의 무당층 비율이 높은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19~21일 NBS 조사에서 중도 성향 응답자의 무당층 비율은 38%로 진보(14%),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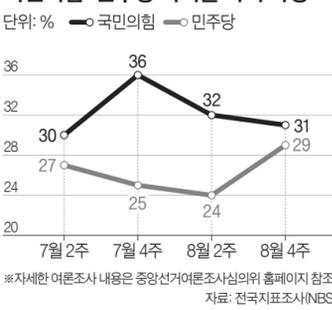


올여름 폭우와 폭염으로 농수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추석을 앞두고 배추·무 등 물가가 비상이 걸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추석 장바구니 물가를 비롯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같은날 오후 대전의 한 농산물 도매시장. 프랜시스 김성태

수(16%) 응답자를 상회했다. 세대별 무당층 비율은 20대(51%), 30대(35%), 40대(22%), 50대(21%), 60대(10%), 70대 이상(11%) 순이었다. 이준호 예스티아이 대표는 "누가 먼저 중·수·청을 겨냥한 파괴력 있는 '퍼스트 무브'를 내딛느냐에 따라 힘의 균형추가 흔들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18일 출범한 '이재명 2기 지도부'도 보수(14%)의 가치인 성장을 앞세우며 중도

국민의힘-민주당 지지율 다시 박빙



확장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19일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목적은 먹고사는 먹사니즘이다. 성장을 회복해서 기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당내 각종 연구모임도 부동산 시장 이슈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등 세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선 중·수·청 확보에 나선 여야의 각축전을 두고 "사실상 대권 레이스가 개막됐다"고 말한다. 여야의 대선 후보 1순위로 꼽혀온 한동훈·이재명 대표가 양당 전당대회를 거쳐 각각 여야 수장으로 선출되면서 지지율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 당분간 선거 등 대형 이벤트가 없는 만큼 지지율을 통해 치열한 중원 쟁탈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유성운·손국희 기자

"습한폭염 꺾었다"

서울 34일 만에 '0.1도 차' 열대야 탈출

북태평양고기압이 약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극한 폭염은 지나갔다는 분석이 나왔다. 태풍 '산산'이 소멸하는 30일을 기점으로 기온이 추가로 내려갈 가능성도 보인다. 서울은 34일 만에 열대야에서 벗어나며 역대 최장 기록 경신을 멈췄다.

25일 기상청 관계자는 "35도를 넘나드는 습한 폭염은 지났다는 취지의 전망을 26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약화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두 고기압이 약해지면 북쪽의 상대적으로 시원하고 건조한 바람이 유입될 수 있고 덥고 습한 남풍류도 약화할 전망이다. 태풍 '산산'의 소멸도 긍정적인 요소다. 현재 일본을 향해 북상 중인 산산은 30일 샛포로 북동쪽 해상에서 소멸할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9월에도 덥겠지만 습하지 않고 일사에 의한 '반짝 더위'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부지방은 처서(22일)를 전후해 낮 최고기온이 1~3도가량 낮아졌다. 서울은 24일 밤 최저 기온이 24.9도를 기록하며 34일 만에 연속 열대야 기록을 멈췄다.

기상청은 26일과 27일에도 서울 최저 기온을 25도로 예상해 당분간 밤 기온도 비슷할 전망이라고 예보했다.

정은혜 기자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랑감
전문**



김영선
연방세무사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님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반려견, 반려묘를 위한-

신제품 세종 후코펫

- 5가지 특수영양성분, 3가지 기초영양성분으로 개발
- 면역력, 관절, 시력건강을 위한 가루타입의 특수영양제
- GMP의약품 제조기술로 최적의 효능을 이루도록 개발

주요 성분

Fucoidan: 항종양효과, 면역력증대, 세질개선효과
 Bilberry Ex: 뛰어난 항산화작용, 시력건강, 소화기능강화
 Glucosamine, Chondroitin: 관절염, 관절건강 증진효과, 통증완화.
 L-Arginine: 혈관확장, 혈류흐름, 해독작용, 활력강화, 성장기 골격형성



신제품

SEJONG FUCO PET
세종 후코펫
Supplement Powder

하루 1스푼 5g (1개월분)



세종바이오텍

www.sejongbiotech.us | www.sejongbiopet.us

703-256-7671



정성웅 보험을 선택하는 이유

자동차 보험료 할인!!



갑자기 확 오른 자동차 보험료 때문에 걱정이시죠?
 그런데도 다른 보험을 알아보시기를 주저하고 계신가요?
 보험료를 절감하시려면, 한 해마다 꼭 “비교” 해 보시고
 보험을 갱신하셔야 합니다!

정성웅 보험

{ 나에게 꼭 맞는 알뜰한 자동차 보험료를
 지금 확인하세요~! }



정성웅 보험 | T. 703.825.2945 Fax. 703.532.4750
 14641 Lee Hwy., Unit 108, Centreville, VA 20121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

영남 일색 지도부, 저조한 투표율... 민주당서 호남은 변방?

#1. '호남, 민주당 상징인가? 변방인가?'

더불어민주당의 8·18 전당대회 이후인 20일 광주KBS가 마련한 토론회의 제목이다. 사회자는 도입부에 “광주·전남에서 지도부에 한 명도 끼지 못했고 특히나 (최고위원에) 세 번 연속 도전이 실패하면서 여당 아니라 야당에서도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2.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임명 때 호남 인사를 배려해야 한다.”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과 우상호 전 의원이 최근 한 말이다. 우 전 의원은 “호남 대표성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했고 박 의원은 아예 특정 의원을 거명했다.

오랫동안 ‘더불어민주당=호남’이었다. 김대중(DJ) 대통령 때는 물론이고 DJ 이후에도 그랬다. 민주당을 대표하는 지도자는 호남 출신이거나 호남을 동력 삼아 도약했다. 전자가 DJ라면 후자는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그러는 사이 민주당의 속제는 압도적인 호남세를 여하히 떨쳐내려나왔다. 그러나 호남이 민주당의 ‘변방’이거나 ‘안배’의 대상이란 댔다는 주장은 과거에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질 것이다.

DJ·노무현·문재인 모두 호남 기반

외양상으론 그럴만하다. 지도부의 출신지 풍경이 바뀌었다. 이재명 대표, 그리고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3명(전현희·김병주·이언주)이 영남 출신이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선산은 경남 사천에 있다. 유일한 예외가 한준호 최고위원인데 호남보단 전북 정제성(전주)이 강하다. 호남 출신을 강조하던 민형배 의원은 최고위원 선거에서 낙선했다. 더군다나 이번이 처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이 지난 4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강선우·정봉주·민형배·김민석·이언주 의원. [뉴시스]

도 아니다. 2021년엔 서삼석 의원이, 2022년엔 송갑석 의원이 도전에 실패했다.

당원 구성이 극적으로 바뀌었나면 그렇지 않다. 민주당 당원 512만 명 중 호남에 거주하는 당원이 33.3%다. 이번 전당의 관리당원 선거인단 122만여 명 중 33.5%였다. 셋 중 하나란 의미다. 수도권 비중이 40%대로 올라섰지만 여전히 상당수는 본인 또는 부모가 호남 출신인 ‘출향 호남인’일 가능성이 있다. 여전히 호남의 발언권이 강한 구조란 의미다.

그런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조귀동 ‘정치컨설팅 민’ 전략실장은 “이번 경선에서 호남이 이제 하위파트너가 됐다는 게 명확히 드러났다”며 “서삼석·송갑석·민형배 의원의 득표율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11.11%(서

삼석)에서 9.05%(민형배)가 됐다.

조 실장이 특히 주목하는 건 투표율이다. 관리당원들의 현장투표만 보면 전국 투표율이 30.9%인데 호남 투표율은 20.3(전북)~25.3%(광주)이었다. 제주(18.4%) 정도를 빼곤 최하위권이었다. 이번엔 광역단체별 경선을 끝낸 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관리당원을 대상으로 ARS투표를 실시, 투표율을 42.3%로 끌어올렸다. 13만9000여 명이 뒤늦게 참여했는데 이틀까지 포함한 지역별 투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ARS투표 때 지역을 묻지 않아서란 이유다. 당에선 “이번에도 전국 투표율에 육박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조 실장은 “(현장투표 때) 5, 6%포인트 차이를 따라잡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민주당 올 전당대회 투표율

*ARS투표 합산 전, 제주(18.4%) 빼곤 최하위권



광주·전남 출신 최고위원 후보 득표율



예상했다. 지난 전대에선 광역단체별로 현장투표와 ARS투표를 병행해서 지역별 투표율이 나왔다. 전체 관리당원 투표율이 37.1%일 때 호남은 34.1(전북)~37.5%(전남)였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도 투표율에 주목하며 “호남의 불편함은 찬성률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투표율로 나타난다”고 했다. 이어 “호남이 주도권을 쥘 게 아니라 증속화되는 구조”라며 “대구·경북(TK)과도 다른데,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을 떠올려 보면 알 것”이라고 했다.

‘호남 정치’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주장도 있다. 광의의 호남은 광주·전남과 전북 거주자뿐 아니라 출향 호남인도 포함한다. 인구 자체만 보면

호남이 영남에 밀리지만 출향 호남인까지 포함할 경우 또 이들 간 결집도까지 감안할 경우 영남과 대등한 경쟁을 벌여온 게 사실이다. 그런데 이게 흔들린다는 것이다. 조귀동 실장은 광주에서 27.8%까지 득표한 민형배 의원이 경기에도 7.5%를 득표한 점, 한 최고위원이 전북에서 21.3%(1위)였으나 광주·전남에선 12% 안팎으로 3위를 기록한 점을 들었다. 전북을 두곤 “거의 반쯤 떨어져 나간 상태”라고 표현했다.

조국당 신장식, 재선거위해 호남 월세살이 여기에 반론도 있다. 의명을 요청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적절한 인물이 등장하면 호남이 주도권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호남은 지난 총선에서도 흔들린 바 있다”면서도 “호남인과 출향 호남인들이 (예전만큼) 같이 움직이지 않지만 그래도 야당을 지지하는 기본적 정서란 있다. 새 대안을 놓고 의사결정을 할 때 집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전대에서의 낮은 투표율이 이 대표에 대한 뜻뜻미지근한 상태를 반영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대표가 자신이 호남에서 흔들리면 지지율이 순식간에 달라질 수 있다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민주당(36.7%)을 제치고 호남에서 1위를 한 조국혁신당(44%)이 10·16 전남 곡성·영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을 제치고 ‘군수 당선자’를 내겠다고 총력전을 펴고 있다. 신장식 의원 등은 아예 현지에서 월세살이를 하겠다고 나섰다. 고정애·성지원 기자

“부천 호텔 화재, 에어컨 불꽃이 침대 옮겨붙으며 급속 확산”

지난 22일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경기 부천 호텔 화재는 객실 에어컨에서 일어난 불꽃이 침대 매트리스에 떨어지며 불이 급속도로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소방당국이 119 신고 접수부터 인명구조 과정까지 제대로 대응했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은 행사기동대·과학수사대 등 총 84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화재 원인과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청이 확보한 폐쇄회로(CC) TV에는 22일 오후 7시 37분쯤 810호에서 연기가 시작된 지 약 1분 23초 만에 층 전체가 뿌여진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소방재난본부 보고서 등을 토대로, 객실 안 벽걸이형 에어컨에서 생긴 불

꽃이 침대 매트리스 등 가연 물질에 옮겨붙으며 화재가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주변 물체가 발화온도까지 가열돼 방 전체에서 화염이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이른바 ‘플레시오버’ 현상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에어컨 불꽃은 누전 등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에어컨으로 뛰어내린 두 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관련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도 조사 중이다. 소방당국은 당일 오후 7시 43분 현장에 도착해 약 5분쯤 뒤인 7시 48분 에어컨을 설치했다. 이후 7시 55분쯤 한 여성이 에어컨 가장자리에 떨어지며 에어컨이 뒤집혔고, 곧이어 뛰어내린 남성은 매트가 뒤집혀 생긴 바닥 공

간에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에어컨이 불량이었는지, 공기량이 충분했는지, 낙하 지시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사고 신고자와 119 접수 요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정황도 확인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첫 신고가 접수된 건 오후 7시 39분 20초쯤이다. 접수 요원은 신고자에게 열 차례 호텔 이름을 묻은 뒤 출동 지령을 내렸다. 이후 “810호 어디? 침대나 뭐 참문 어디?”라며 객실 안 구체적인 발화 장소도 물었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 대응의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사고가 난 호텔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것과 관련해 관련 법 개정이 필



25일 오전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사고 현장 앞에 고인을 추모하는 국화꽃이 놓여 있다(오른쪽 사진). 왼쪽 사진은 불에 탄 호텔 복도 모습. [연합뉴스, 사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5일 오전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사고 현장 앞에 고인을 추모하는 국화꽃이 놓여 있다(오른쪽 사진). 왼쪽 사진은 불에 탄 호텔 복도 모습. [연합뉴스, 사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05년 11층 이상 숙박시설에 대해 층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2017년에는 설치 대상을 6층 이상 숙박시설로 확대했다. 하지만 개정 전 이어진 숙박시설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불이 난 부천 호텔은 지난 2004년 10월 사용 승인을 받은 9층 건물이다.

전문가들은 요양병원·어린이집 등처럼 숙박시설에도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을 소급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채진 목원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숙박업소의 경우 투숙객이 건물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완강기·에어매트는 최후의 피난 수단일 뿐 화재 진압은 할 수 없는 만큼, 스프링클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찬규·박승기 기자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598-3316

정문기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미극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전 매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 *VA, MD, DC 면허 소지

저서

-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 *정신원구원위대전
-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 특진 (사암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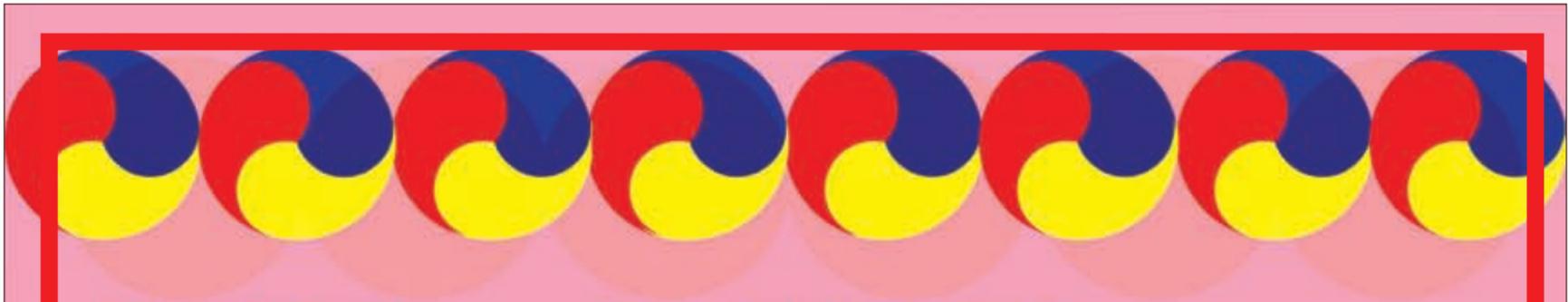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실염, 부인과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TV TRAVEL CHANNEL
서울미극한방병원 방영

크레딧카드 결제 환영



새 경영진
NEW MANAGEMENT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어머님,
아버님!**

**사랑과 정(情)으로
효심껏 모시겠습니다.**



이선옥 원장

장두석 회장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Arirang Adult Medical Daycare Center

센터 운영 시간

월요일-토요일
오전 8시-오후 2시

Tel: 410-730-9740 Fax:410-730-9742 Mail: ariranginfo@gmail.com

주소: 9170 Rumsey Rd. Columbia MD 21045 www.aamdc.org

해리스 “동맹에 등 안 돌려” vs 트럼프 “동맹 무임승차 안 돼”

한반도문제·국방·경제 등 정책 대척점
김정은 평가 “폭군” “잘 지낼 것” 갈려
해리스는 중산층 지원 불평등 완화
트럼프, 규제완화·감세로 성장 촉진

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확대를 꾀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했으며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에 힘써 왔다. 민주당의 새 정강도 “미국은 파트너 국가가 강할 때 가장 강하다. 미국은 동맹에 등을 돌리지 않겠다”고 하는 등 동맹 중시 관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트럼프는 동맹 관계를 ‘비용’으로 보는 인식이 강하다. 지난달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그는 “우리는 오랫동안 다른 나라에 이용당해 왔다. 이런 나라는 소위 동맹국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동맹국들이 우리의 공동 방위 투자의 무를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적시한 공화당 정강에서도 이런 관점이 반영돼 있다. 대외 정책 핵심은 ‘힘에 의한 평화’로 요약된다. 트럼프는 지난 2월 “국내총생산(GDP) 2%를 방위비로 부담하지 않는 나토 회원국에는 그들(러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했다. 10일 해리스 후보가 남편 더그 엠호프(왼쪽)와 손을 잡은 제자자인 캐리 워싱턴(가운데)이 해리스의 조카 손녀 릴라(왼쪽), 어머니와 함께 무대에 올랐다.

시아)이 내키는 대로 하라고 할 것”이라고 하는 등 나토 탈퇴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안보 지원에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당선 시) 전화 한 통으로 전쟁을 멈출 수 있다”고 한 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이른바 ‘스트롱맨’과의 담판 외교를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리스와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인식에서도 180도 상반된 생각을 드러냈다. 해리스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김정은을 “폭군과 독재자”로 규정했다. 반면 트럼프는 지난달 18일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김정은과 다시 잘 지낼 것”이라고 했다. 이런 견해차는 한반도 정책과 한-미 관계에 대한 인식차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해리스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통한 대북 억지력 유지·강

화에 주안점을 둔다. 이에 반해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무임승차 불가론을 고수한다. 지난 4월 시사 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원한다”고 답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인상 압박을 강하게 암시하는 대목이다.

경제·산업·무역 정책에서도 둘은 대척점에 있다. 해리스의 경제 정책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중산층의 자녀 세액공제를 늘리는 등 세금 감면 조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대선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올려 부족한 세수(稅收)를 채운다는 방침이다.

해리스는 이날 연설에서도 중산층 재건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중산층

구축이 제 대통령직의 결정적 목표가 될 것”이라며 (당선 시) 1억 명 이상의 미국인에게 혜택을 줄 중산층 감세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는 기업 규제 완화 및 감세를 통한 경제 성장 촉진을 더 중시한다. 또 석유·가스 시추를 늘려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연방정부 지출을 억제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전기차 관련 의무 조치도 무효화하겠다고 한 만큼 관련 업계에 파장이 일 수 있다.

트럼프의 무역 정책도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른 관세 장벽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트럼프는 외국산 수입품에 보편관세 10%,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
한-미 동맹,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통한 대북 억지력 유지 “김정은 같은 독재자에 아첨하지 않을 것” (후보 수락 연설)	북-미 정상 친분 앞세운 틈다운식 관계 개선 “김정은과 다시 잘 지낼 것” (후보 수락 연설)
“미국은 동맹에 등 돌리지 않겠다” (당 정강) 한-미 관계 중시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압박 등 무임승차 불가론
“미국은 파트너 국가 강할 때 가장 강해” (당 정강) 동맹 중시, 나토 강력 지지 핵무기 3축 현대화 추진	“동맹국 공동방위 투자 의무 이행해야” (당 정강) 동맹을 비용으로 인식, 나토 탈퇴 검토
중산층 지원으로 불평등 완화 추진	힘에 의한 평화 및 미군 현대화 추진
청정에너지 생산 확대 및 성장 지원	기업 규제 완화 통한 경제성장 중시 석유 등 화석에너지 생산 확대 및 그린뉴딜 정책 폐지 추진

“미국 상대로 가스라이팅”... 트럼프, 해리스 연설 중 SNS 실시간 맹폭

30분간 37건 ‘트루소셜’에 올려
“해리스 동지, 3차 대선 물고 갈 것”
후보 사퇴 케네디, 트럼프 지지 압박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지켜보며 실시간으로 비난을 쏟아냈다.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오후 해리스의 대

선 후보 수락 연설이 이뤄진 30분 동안 총 37건의 게시물을 본인의 SNS ‘트루소셜’에 잇달아 게재하며 해리스를 맹비난했다. 트럼프는 “카멀라가 미국을 상대로 ‘가스라이팅’ 하려는 것을 보라”며 “카멀라 해리스 ‘동지(comrade)’ 밑에선 미래가 없고, 우리를 제3차 세계 대전(Nuclear World War III)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트럼프는 해리스의 경제 정책이 ‘소련식 사회주의’라고 비방하면서 그를 ‘동지’라고 불렀다. 실제로 트

럼프는 이날 “해리스는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우리의 모 든 돈을 쓰겠다고 한다”며 “급진적 마르크스주의자”라고 색깔론을 폈다.

해리스가 연설에서 중산층 강화를 말한 것에 대해선 “그가 중산층을 파괴했고, (여러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비난했다. 이민 문제와 낙태권 등에 관한 생각을 해리스가 밝힌 직후엔 “그가 새로운 길을 개척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부통령으로 지낸 지) 3년 반이 지났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꼬아붙였다.

해리스가 연설을 통해 언급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그는 중국과 프락킹(세일가스 시추 기술인 수입과쇄법), 에너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의미 있게 언급하지 않았다”며 “미국에 있는 6000만 명의 빈곤층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대외 정책과 관련해선 “내가 대통령이었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결코 시작하지 않았을 것” “해리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2일 멕시코 국경 인근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가 10월 7일의 공격(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을 일으킨 것” 등의 주장과 함께 “해리스는 무능과 나약함의 대명사”라고 비난했다.

이승호 기자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어르신 모십니다!

“정성과 돌봄이
다릅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양질의 한식과 간식
- 최고의 시설 (1인/1실)
- INOVA 병원 5분 거리
- 한국 TV 시청 가능
-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

문의 703-980-9890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해리스 “북, 트럼프가 독재자에 책임 묻지 않는 것 알고 있어”



고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부통령 후보인 팀 윌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그의 부인 그레 여사. 2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린 시카고 유니티센터. 3 지원 연설하는 해리스의 여동생 마야 해리스. 4 배우 겸 영화

(AP-EPA=연합뉴스)

해리스, 미 민주당 후보 수락 연설

카말라 해리스(사진) 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트럼프를 응원하는 김정은 같은 폭군(tyrant)이나 독재자(dictator)의 비위를 맞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18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직을 수락하며 “핵무기를 많이 가진 이(김정은)와 잘 지내는 것이 좋다”고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오는 11월 5일 미국 대선은 사실상 대북 전략 원칙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시카고 유니티센터에서 38분간 진



행된 수락 연설에서 해리스는 차분한 어조로 발언하다 강조할 몇몇 대목에서 목소리를 갑자기 높이는 방식의 화법을 썼다. 그중 하나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관련 발언이었다.

해리스는 이스라엘 전쟁과 관련 “이란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테러리스트들로부터 미군과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런 뒤 갑자기 톤을 올려 “김정은과 결코 동조하지 않겠다”는 말을 꺼냈다.

당원들의 큰 환호가 나오자 해리스

는 “그들(북한)은 트럼프가 아침과 호의로 조종하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트럼프 자신이 독재자가 되길 원하기 때문에, 그들은 트럼프가 독재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안보 원칙에 대해선 “민주주의와 독재 사이의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미국이 어디에서 있는지 알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안보와 이상을 수호하는 데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고 했다. 김정은은 이날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제외하고 실명으로 거론된 유일한 독재자였다.

해리스는 트럼프가 사실상 ‘금전적 거래’로 접근했던 동맹의 개념에 대해

서도 다른 입장을 냈다. 그는 “분명히 말해두겠다”며 “대통령으로서 우크라이나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과 함께 굳건히 서겠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한달 전 수락연설에서 “미국은 소위 동맹국으로 간주되는 나라들로부터 오랫동안 이용당해왔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해리스는 이에 대해 “트럼프는 푸틴에게 우리의 동맹국을 침공하라고 부추기고, 러시아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나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포기하지 않고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팔레스타인과 중동계가 반발하며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가자

전쟁 관련 문제에 대해선 다소 애매한 입장을 펼쳤다. 해리스는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옹호하고, 스스로 방어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며 아랍계가 요구하는 이스라엘 지원 중단을 사실상 거부했다.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에 대해선 “지난 10개월간 가자에서 일어난 일을 참혹한 일”이라고 하면서도 “인질이 석방되고 가자의 고통이 끝난 뒤 팔레스타인의 존엄과 안전, 자유, 자결권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는 민주당 전당대회 내내 인근에서 시위를 벌였고, 경찰과의 충돌 과정에서 50여 명이 체포됐다. 이들은 전당대회에서 팔레스타인계 대의원의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수용하지 않았다.

정치 및 선거와 관련해 해리스가 반복적으로 강조한 말은 “국민을 위해(For the people)”였다. 그는 “정당, 인종, 성별, 언어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미국인을 대신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직을 수락한다”며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우리의 삶뿐 아니라 미국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 중 하나”라며 “안전장치가 없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당신들의 삶을 개선하거나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명의 고객인 자신을 위해 어떻게 쓸지 상상해보라”고 했다. 시카고=강태화 특파원

해리스 찬사는 이제 끝나... 전대 지지율 3~4주 후에도 유지 관건

최형두 의원이 본 미국 민주당 전대 부통령 4년간 정치적 역량 미지수 11월 5일까지 넘어야 할 산 많아 경제·낙태·이민 이슈 앞서가야

“과연 카말라 해리스가 11월 5일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2024년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해리스 후보의 대관식을 직접 보면서 문득 워싱턴 특파원 시절 취재했던 2008년 덴버에서 버락 오바마가 후보지명을 수락하던 현장이 떠올랐다. 오바마의 등장은 실로 1년 이상에 걸친 드라마였지만 해리스 등극은 지난 1개월 동안 민주당 인사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과정이었다.

“해리스에 대한 열광, 그리고 투표율

이 승부를 좌우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 때 고위직을 지낸 시카고 소재 싱크탱크 관계자는 “전당대회에서 결집된 해리스 지지율이 3~4주 이후에도 추세를 이어갈지 큰 관건”이라며 “10월에 악토버 서프라이즈, 예컨대 중동 분쟁 악화로 인한 유가 급등 같은 악재가 터져 나오면 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2008년 오바마 등장 때는 첫 흑인 대선 후보 대 첫 여성 대선 후보 경선으로 시종 공화당 경선과 전당대회를 압도했다. 하지만 지난 몇 개월 민주당은 존 바이든 대통령의 TV토론 참패로 악몽에 빠졌고 해리스 아닌 다른

정치인들이 후보 대안으로 거론되었다. 하지만 시간은 짧았고 어쩔 수 없이 해리스를 받아들여야 했다. 19일부터 23일까지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클린턴 부부, 오바마 부부, 바이든 부부 등 민주당 핵심인사가 전원 출동해 해리스 지지연설을 했다. 민주당 핵심인사들의 지지와 찬사는 이제 끝났고 지금부터는 해리스 후보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지난 4년간 부통령이었지만 정치적 역량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여기에 트럼프의 공화당은 해리스가 2019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잠시 나섰을 때 밝혔던 좌파적 입장들을 공격할 것이다.

지난 1개월 사이 위스

콘신·미시간·펜실베이니아 같은 격전지 주에서 해리스 지지율이 근소하게 트럼프를 앞서가고 있지만, 해리스가 11월 5일까지 넘어야 할 산은 여전하다. 뉴욕타임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격전지 주의 핵심 이슈는 경제·낙태·이민이었다. 트럼프는 경제와 이민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었고 반면 해리스는 낙태와 민주주의 이슈에서 앞섰다.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지역구를 물려받은 측근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중산층을 위한 주거비용·돌봄비용, 그리고 조세 약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진전은 없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댄 텍사스 샌안토니오 출신 호아킨 카스트로 하원의원은 “불법이민 이슈는 공

화당이 강세를 보여왔다”고 말했다.

해리스는 24일 후보수락연설에서 미국 대법원의 판결로 뒤집어진 낙태권 보호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여성과 젊은 층을 공략했다. 퓨리서치센터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낙태권 보호 지지 여론은 64% 정도인 만큼 여성유권자와 젊은 층에 매우 중요한 주제다. 종교·지 지정당에 따라 찬반 비율이 다르지만 여론이결집할 경우 최고지지율을 47%에 갇혀있는 트럼프를 흔들 수 있는 변수다.

민주당은 8년 전 첫 여성 대통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에게 290만 표 차이로 트럼프에게 졌던 기억을 안고 있다. 극단적으로 갈라진 미국 정치에서, 사상 첫 아프리카인 아메리칸 여성 후보의 70여 일간의 장정은 이제 시작되었다.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속만증, 후만증)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축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박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교통사고·메디케어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시플랜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예약환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센터빌, 첼트리 지역]

미국 이민법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김웅용 변호사

미국 이민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시민권 / 영주권

- 가족초청이민
- 취업이민
- 종교이민
- 투자이민 (EB-5)
- 간호사(RN)
- NIW

비 이민비자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생담 및 신분 변경
- 종교비자 (R)

(Eng/Kor) (구원뽕뽕) (한국어 상담)
Joy Law Group, PLLC. 버지니아 오피스 703-246-9100 | 703-309-1455 뉴욕 오피스 646-256-9156(Kor) | 212-739-0843(Eng)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우리말 바꾸기

‘주십시오’, ‘주십시오’

“모금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계획을 취소해 주십시오!”

당부를 전할 때 주의할 표현이 있다. ‘주십시오’를 ‘주십시오’로 고쳐야 바르다. 문장을 끝내는 종결어미는 ‘-오’가 아니라 ‘-오’이기 때문이다. 앞 모음 ‘이’의 영향을 받아 마지막 어미가 [오]로 소리 나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 하십시오체뿐 아니라 “도와 주시오” 같은 하오체 문장도 ‘-오’로 끝난다.

‘-오’는 어떤 사물·사실 등을 열거할 때 쓰이는 연결어미다. “이건 두통약이요, 저건 감기약이다”처럼 사용한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이도 있다. “너무 늦었어요” “그러는 게 좋지요”에서의 ‘오’는 무엇일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어미 뒤에 덧붙는 것이다. 연결어미 ‘-오’나 종결어미 ‘-오’는 생략할 수 없지만 보조사 ‘오’는 떼어 내도 말이 된다. “너무 늦었어” “그러는 게 좋지”라고 해도 무방하다.

‘-오’와 ‘-오’를 헷갈리게 하는 요소는 또 있다. 바로 하오체다. 하십시오체와 하오체 자리에 두루 쓰이면서 혼란을 부른다. “말씀하세요”에서 ‘-세오’는 ‘-시어오’의 준말이다. ‘-시’는 선어말어미고 ‘-어’는 종결어미다. 이들 어미 뒤에 붙은 ‘오’는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다. “말씀하세요”도 마찬가지다. 어미에 보조사 ‘오’가 결합한 말이다. “말씀하십시오”와는 구별해야 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낯,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운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유홍주 칼럼

음모(陰謀)는 드러나지 않는다



유홍주 한미자유연맹 상임고문

아니니 다들까 이번에도 여지없이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피격 사건 얘기다. 미국 일부 언론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트럼프 귀에 묻은 피가 연극용 물감이고, 총격은 자작극이며, 비밀경호국(SS)이 트럼프 선거본부와 협력해 조작했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피격 직후 성조기를 배경으로 피를 흘리면서 결연한 표정으로 주먹을 치켜드는 사진도 “즉석에서 찍었다기엔 지나치게 완벽하다”고 주장한다. 결국 트럼프는 총알은 피했지만, 음모론은 피하지 못했다.

지구상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중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건도 많다.

이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음모론(陰謀論)이다. 음모론은 큰 사건이나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의도적으로 비밀리에 공모한 것이라고 확산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배후엔 당연히 거대한 권력이나 비밀스러운 조직이 있다고 믿는다.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음모론은 역시 달 착륙에 관련된 것이다.

1969년 7월20일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 아폴로11호를 타고 처음 달 착륙에 성공했다. 하지만 음모론자들은 미 항공우주국(NASA)이 애리조나 사막에서 연출된 사진을 찍어놓고 달 착륙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 얘기는 지금도 유행하고 있어 최근 ‘달 착륙 음모’를 다룬 영화 ‘플라이 미 투 더 문(Fly Me to the Moon)’까지 개봉됐다.

영화는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을 타며 달 착륙 음모론을 유포하게 비튼다.

음모론의 역사는 꽤 오래됐다. ‘케네디 대통령 암살에 미국 정부가 관여했다’는 음모론부터 ‘미국 정부가 UFO의 존재를 숨기고 있다’ 같은 것들이다. 이에 대해 미국의 과학자이자 작가인 마이

클 셔머는 저서 ‘음모 론이란 무엇인가’에서 사람들이 음모론을 믿는 이유를 세 가지 모델로 설명했다.

대리 음모주의(사회불신), 부족 음모주의(집단 의식), 건설적 음모주의(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진화적 본성)다.

먼저, 대리 음모주의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 거기에 심은 컴퓨터 칩이 우리를 조종한다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거대 제약회사에 대한 강한 불신이 깔려 있다.

다음은 부족 음모주의는 같은 집단에 속한 구성원에게 충성심을 드러내는 신호로 작용한다.

실사 음모론을 믿지는 않지만 지지자 앞에선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끝으로, 건설적 음모주의는 진화적 역사를 반영한다.

나뭇가지를 뱀이라고 착각하고 도망갔던 조상들은 그렇지 않은 조상보다 더 잘 생존하고 번식했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그것이 음모론일 지라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자동 알고리즘이 있다는 것이다.

음모론은 계속 생기고 이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 비밀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있다. 그 이유에 대해 이탈리아의 기호학자이자 ‘잠미의 이름’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쓴 움베르토 에코가 한 마디로 설명했다. 바로 ‘침묵의 증거’다. 만일 미 우주선이 실제로 달에 착륙한 것이 아니라면 당시에 누군가는 그 사실을 말했을 것이다.

지구상엔 그것을 검증할 능력이 있는 누군가가 있었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 누군가의 이익에도 부합했기 때문이다. 그건 바로 소련이다. 하지만 당시 소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것으로 논란 끝이다. 또 실제로 음모가 있었다면 그게 설령 단 한 사람만 아는 비밀일지라도 당사자는 웬만큼 시간이 지나면 애인에게라도 비밀을 털어놓게 되어 있다.

더구나 음모의 비밀이 있다면 적당한 가격에 그것을 팔 용의가 있는 사람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한 영국군 장교가 다이애나 왕세자비와의 잠자리에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는 대가로 수십만 파운드를 받은 것이 그 사례다.

9·11 테러 경우도 마찬가지다. 쌍둥이 빌딩에 테러를 저지른 범인이 따로 있다면, 거주장스러운 증거들을 없애는 일에 최소한 수백명은 필요했을 것이다. 따라서 오래된 음모론일수록 그저 미용실의 ‘카터라 통신’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음모론은 계속 새롭고 다양한 형태로 생겨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음모론을 퍼뜨리기 좋은 환경이다.

나름의 논리를 갖춘 과거의 음모론과 달리 요즘 음모론은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막무가내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정보에 대한 신뢰가 강한 사람일수록 음모론을 더 잘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모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떤 증거를 내놓아도 이마저 조작됐다고 주장한다. 그중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 논리상, 이치상 타당하지 의문이다.

음모론자들은 자신만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강한 자부심과 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무지를 동정하고 경멸하는 경향이 강하다. 결국 대화가 안 된다.

독자 마당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대 유적지를 여행하다 보면 신기한 것들이 많다. 내가 여행했던 곳 가운데 멕시코의 치첸이트사, 과테말라의 티칼, 페루의 마추픽추 그리고 요르단의 페트라 등이 기억에 남는다. 이들 중에 물로 인해 망한 곳이 페트라다. 페트라는 거대한 암석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깎아 신전과 주택 등을 만들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쓸어가 버렸다고 한다.

전 세계가 기상 이변을 겪고 있다. 이곳 LA도 연일 불볕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국도 계속되는 폭염으로 난리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폭우가 쏟아져 홍수 피해가 발생한 나라도 있다. 자연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다. 따라서 자연에 순응하면서 더는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지구 온난화가 심각한 문제다.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발생하는 문제들 때문이다. 많은 과학자가 지구 온난화는 이산화탄소 등 많은 온실가스 배출이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그런가 하면 어떤 주기에 의해서 지구가 추워졌다 더워졌다를 반복한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도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구의 남극과 북극은 여러 번 뒤바뀌었다는 것이다.

지구 온난화의 정확한 이유에는 이견이 있지만 논란이 필요 없는 것도 있다. 사람은 날이 가고 시간이 지나면 늙는다는 것이다.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많은 곳으로 사람까지 보냈으나 결국 찾지 못했다. 사람이 늙어가는 것은 황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젊고 기운이 넘쳤던 나도 벌써 86세가 되었다. 나라고 나이 드는 것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나이 들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도리밖에 없다. 무엇을 해야 즐길 수 있을지는 연구해 봐야겠다.

서효원·LA거주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퀘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 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Sung Hwang & Kim

합동 법률 사무소 MD, DC, VA



VIRGINIA OFFICE

7353 McWhorter Place, Suite 202
Annandale, VA 22003



MARYLAND OFFICE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한인들의 모든 법률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것이 저희 로펌의 목표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후회없는 선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month
고문 변호사
membership program

- **완벽한 영어** 와 **풍부한 재판 경험** 으로 법정에서 자신있게 여러분을 변호합니다.
-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변호사 비용 무료**
- **첫상담 무료** (특정분야 제외)

주요 업무 분야

- 교통사고 보험청구/의료비/수리비/휴직 보상
- 민사소송
- 비즈니스 설립/매매/분쟁
- 사업체 고문변호사 제도
- 보험
- 손해배상
- 의료사고
- 부동산 매매/Lease/분쟁
- Liquor License

한국 비즈니스
오너들을
대표해서
FOX NEWS,
CNN 인터뷰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전. 하워드 한인회 회장
Maryland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Dickstein Shapiro, LLP
Baker Botts, LLP
New York Court of Appeals
Maryland Court of Appeals



폴 김 변호사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약력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Sung Hwang & Kim | LLP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Wheaton,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11262 Georgia Ave., 2nd Fl.
Wheaton, MD 20902

시 설

의료 현장 ‘총체적 난국’… 정부는 무슨 대책이 있나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 오는 29일부터 전국 61개 대형병원에서 동시 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료기사 등이 가입한 단체다. 지난 23일까지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선 61개 병원의 조합원 82%가 참여해 투표자의 91%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한다. 이미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진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에서 병원 간호사 등의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의료 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노조는 첫 번째 요구 조건으로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내걸었다. **쫓일 대로 쫓인 의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한 이후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지도 6개월이 넘었다. 저렴한 인건비에도 주 80시간 근무를 감수하던 전공의들이 빠져자 병원들은 환자 진료를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진료 수익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고정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막대한 적자를 내는 병원이 속출했다. 경연년이 심해진 병원들은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무급 휴직이나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간호사를 포함한 병원 근로자들이 극심한 고용 불안움을 느끼는 이유다.

현재 의료 현장의 ‘총체적 난국’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외래 진료와 입원·수술의 연쇄적인

차질에 이어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응급실마저 파행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다. 지난 15일 충북에선 임산부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119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출산하기도 했다. 지방에서 시작한 응급실 대란은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는커녕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서울 이대목동 병원의 남궁인 응급의학과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현재 의료 체계는 시한폭탄”이라며 “구급차는 지역을 넘어 뺑뺑이를 돌고 의료진의 번아웃(소진)은 일상이 됐다”고 전했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면서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응급실에 환자가 몰리는 추석 연휴는 다가오고 있다.

상황이 계속 심각해지는데도 정부의 대응은 안일하기만 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보건 의료노조에 파업을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없이 말뿐이었다. 응급실 대란에 대해서도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과연 정부에 ‘립서비스’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대책이 있는 건지 묻고 싶다. 정부는 원론적인 말을 반복하는 대신 당장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전공의 떠난 병원에 간호사 등도 파업 예고
응급실 파행도 확산… ‘립서비스’로는 안 된다**

금융당국, 은행 탓 앞서 신관치 논란 해소부터

제2금융권인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낮아지는 초유의 금리 역전이 벌어졌다. 5개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금리가 낮은 NH농협은행 주담대 최저금리(23일 기준)는 3.65%로, 7개 주요 생보사(3.59%)나 손보사(3.19%)보다 높다. 보험사는 은행보다 자금 조달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더 높은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주요 보험사들이 금리 선정의 기초가 되는 국고채 금리 하락에 맞춰 주담대 금리를 낮추는 동안 5대 시중은행은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며 거꾸로 지난 두 달 동안 22차례 금리를 인상한 탓에 이 같은 금리 왜곡 현상이 빚어진 것이다. 관치금융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어제(25일) KBS에 출연해 “은행이 불량 관리나 적절한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은행에)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금융감독 당국의 주장이 시장금리 개입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례적이기도 하지만, 신관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시중 금리가 하향세에 접어들었는데도 은행이 주담대 금리를 올린 것은 금융당국의 유·무형 압력 탓이

었다. 이 원장만 하더라도 지난달 2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상당한 금리 인하 기대에 편승한 대출 확대는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은행을 압박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조사까지 언급했다. 시중은행들의 금리 인상엔 이런 금융당국의 압박이 작용했다.

22일 현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22일 기준)은 지난달보다 6조7903억원 늘어 월별로는 2016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특히 주담대 증가세는 역대 가장 빠른 수준으로, 코로나로 0%대 초저금리를 유지하던 때보다 더 빠르다. 이처럼 빚이 견잡을 수 없이 늘면서 올 2분기 국가채무와 가계빚 합산은 사상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금융감독 당국을 비롯해 경제 부처가 엇박자를 내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준 요인이 적지 않다. 당초 7월 도입 예정이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규제 시행을 불과 몇세 앞두고 돌연 9월로 연기하면서 대출을 끌어모아 부동산 투자 막차를 타려는 ‘영끌족’을 자극했다. DSR 규제 연기로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한편, 은행에는 대출금리를 올리도록 유도해 놓고 이제 와 탄소리를 하는 셈이다. 남 탓 할 시간이 없다. 이제라도 정교한 정책 대응으로 집값 불안 심리를 잠재워 급증하는 빚을 잡아야 한다.

10대 파고든 딥페이크 성범죄



양성희의 시사각각
時 視 各 角

여교사 19명에 대한 불법 합성물을 직접 만들어 SNS 채팅방에 공유한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디지털 기술 발달이 범죄의 저연령화로 이어진 아이러니한 결과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범죄 피의자의 75.8%가 10대였다. 20대 피의자는 20%로, 1020을 합하면 95.8%에 달했다. 젊은 세대일수록 디지털 기술에 능하고, 특히 10대 사이에선 범죄라는 인식 없이 또래집단 내 가벼운 놀이나 용돈벌이처럼 퍼지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사건의 절대다수는 남학생이 여학생을 상대로 한 것이지만 남학생이 남학생을, 여학생이 여학생을 대상으로 벌이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이 학폭이나 괴롭힘의 한 유형이 되고 있다는 의미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강

지난 5월 서울대에 이어 이번에는 인하대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이 터졌다. 여성 사진을 토대로 성적 목적의 불법 합성물(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범죄다. 해당 텔레그램 단체방 참여자는 1200명, 피해자는 20명이 넘었다. 지난 서울대 사건과 똑같이 경찰은 “서버가 외국에 있어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요지부동이었고, 결국 피해자가 1년여 텔레그램 방에 잠입해 직접 증거를 모아야 했다. 2명이 경찰에 입건됐는데, 그중 한 명인 인하대 남학생은 “사진을 보기만 했다”고 주장해 풀려났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착취물은 유포 목적이 없으면 만들어도, 시청해도 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대학뿐이 아니다. ‘겉지인방’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지역이나 대학 중심으로 모인 참가자들이 서로 같이 사는 ‘겉지인’에 대한 불법 합성물을 제작·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 보도에 따르면 참가자가 1300명인 한 텔레그램 방에는 70개 대학의 개별 대화방이 존재했다. 알 만한 모든 대학의 이름이 나온다. 인하대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선 의뢰 피해 사실을 알려주는 척 접근한 후 피해자의 반응을 텔레그램 방에 공유하는가 하면, 피해자와 지인들에게 전화나 문자로 협박·조롱하는 일도 있었다. 텔레그램이라는 보호막 뒤에 숨어 피해자가 모욕감에 수치스러워하고 고통받는 반응까지 즐긴 것이다.

여성 사진을 올리면 유·무료 봇이 즉각 다양한 수위의 나체 사진으로 바뀌주는 딥페이크 제작 텔레그램 방의 존재도 알려졌다. 이용자가 22만 명이 넘었다. 한 X(전 트위터) 이용자는 “전국 택시가 26만 대나 길에서 택시 지나가는 정도로 성범죄자를 마주친다는 뜻”이라고 개탄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중·고등학교로도 내려와 범죄 가해자의 상당수가 10대라는 점이다. 텔레그램에는 지역별 중·고등학교 겉지인방이 존재했다. 최근 부산에서는 중학생 4명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여학생과

**딥페이크 가해자 4명 중 3명 10대
기술 접근 용이하고 장난처럼 여겨
처벌 강화에 교육, 문화 개선 절실**

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미성년 대상 성범죄에만 허용된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로 확대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불법 합성물 유포뿐 아니라 소지·시청도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이 필요하다(아동 성착취물이나 실제 불법촬영 성착취물은 제작 유포자뿐 아니라 소지자도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은 별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불법 촬영물보다 현저히 낮은 불법 합성물의 양형 기준을 높일 필요도 있다.

문화와 의식의 변화, 교육도 뒷받침돼야 한다. 남녀가 성적으로 존중하는 관계를 맺는 내실 있는 성(평등)교육, 디지털 윤리교육과 함께 여성에 대한 성적 모욕이 가벼운 ‘재미’가 되는 성착취적 온라인 문화의 개선 없이 달라지는 게 있을까. 딥페이크 성범죄 기사에는 백이면 백 “어떻게 남자를 믿고 사귀냐”라는 댓글이 달린다. 날로 심각해지는 우리 사회 젠더 간 갈등과 혐오, 저출생으로 이어지는 비연애·비혼 트렌드, 뿌리 깊은 사범 불신 등이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다.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ibfe.joongang.co.kr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물품·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재판/제1차지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FINANCIAL TIMES 일본/朝日新聞, 日本経済新聞 구독료 월정 20,000원 1부 1,000원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허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종윤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 ©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5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 편리하게!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1주년 기념 사은행사

시간이 멈추는 곳, 맛으로 기억되는 순간들

최상급 블랙 앵거스 고기를 사용해 18일간 정성스럽게 숙성된
육즙가득한 고기의 맛을 즐겨보세요.

특별한 날 깊은 풍미와 부드러운 식감으로 맛있는 식사를 경험하세요.



KOHO에서 **8월 28일까지**
식사하시는 분들께
Raffle Ticket 1장을 드립니다.

추첨 2024년 8월 28일 (수) 6pm

* 당첨되신 분들께는 개별 통지해 드립니다.

특상 (Grand Prize)	1명	홍진영 VIP 특석 2매와 Backstage Pass
1등 (1st Prize)	5명	홍진영 VIP 특석 or 홍진영 VIP Suite 2매
2등 (2nd Prize)	10명	홍진영 일반석 2매와 \$25 KOHO Gift Card
3등 (3rd Prize)	10명	\$100 KOHO Gift Card
4등 (4th Prize)	20명	\$50 KOHO Gift Card



홍진영
Hong Jin-Young
Concert
8월 31일 (토)

홍진영 콘서트 티켓을
KOHO에서 구입하세요.
15% 할인과 \$25 KOHO
Gift Card를 드립니다.
[티켓판매문의] 443-812-4221



Gift Voucher
20% OFF

Valid through OCT. 31, 2024. Cannot be combined with Casino Comps. Limit one voucher per transaction.



다양한 한식 메뉴와 프라이드 치킨 메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443.222.7777 www.kohobbq.com

7002 Arundel Mills Cir., Hanover, MD 21076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경제 & 연예/문화 Sports

JoongAng Ilbo

Monday, August 26, 2024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과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당한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미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t.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건강식품 바로 알고 먹읍시다”

세종바이오텍 16년째 캠페인
세종바이오텍 본사 데이빗 서 대표를 만나다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
니다”
“16년 전 워싱턴 지역에서 세종바이
오텍을 열고 착박한 건강식품 문화를 개척
해 왔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크게 증가
하고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전문가들이
독식하던 정보를 누구나 쉽게 접할수
있게 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 가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정보의 홍수 속에 무수히 많은 건강식
품도 난립하며 욕망을 가리기 힘들어지
던 시대에, 세종바이오텍은 올바른 건강
식품 문화를 워싱턴 지역에 뿌리내리고
자 2008년,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대장
정의 뜻을 올렸다.

당시 서브프라임사태로 미국 전체가
경제 위기를 맞고, 경제 각 부문이 긴축
모드로 돌입하는 와중에, 어찌보면 세
종바이오텍은 무모하게 창업전선에 뛰
어들었던 셈이다.

데이빗 서 대표는 “허락하신 자연으
로 인간을 생각합니다”를 창업 슬로건
으로 내걸고 천연의 자연제품으로 우리
의 백세건강을 건강하게 유지하자는 모
토로 사업에 뛰어들었다”면서 “당시는
어떤 건강식품이 좋은 제품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였기에 한민 동포들의 인식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아 ‘건강식품 바
로알고 먹읍시다’라는 캠페인을 전개하
면서 회사를 알려나가기 시작했다”고
회상했다.

서 대표는 현재 ‘식약처가 인정하고 검
증한 건강제품을 바로알고 복용하세요’
라는 캠페인을 내세우며 16년을 하루같
이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건강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것
들은 건강보조식품, 건강식품, 건강기능
식품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구분이
쉽지 않다.

세종바이오텍은 식약처에서 인정하



고 의약품제조 기준을 준수한 제품만을
업선해 선보이고 있다.

서 대표는 “한국건강식품의 경우, 제
품 레이블이나 박스에 KFDA(건강기능
식품), GMP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효능이 레이블에
표기돼 있는지를 살핀 후 구입 해야 한
다”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캠페인에 소비자들이 호응과
신뢰로 화답하면서 세종바이오텍은 점
차 미국 전체를 대표하는 한인건강식품
회사로 거듭날 수 있었다.

버지니아에서 시작한 세종바이오텍
은 16년을 걸어오는 동안 확장을 거듭하
며 뉴욕, 뉴저지, 애틀랜타, 시애틀, 달라
스, 시카고 등으로 지사망을 넓혀갔다.

이 기간에도 많은 건강식품 회사들이
명멸을 거듭해 왔으나, 세종바이오텍은
누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견실한 성
장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세종바이오텍의 첫 출시작이자 히트
작인 ‘세종송보감’은 현재까지도 혈관건
강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스테디셀러다.

혈관건강을 위한 세종송보감에 이어,
방광건강을 위한 ‘세종요로청보감’, 관
절건강을 위한 ‘세종관절보감’ 등 보감
시리즈를 잇따라 출시하면서 세종바이
오텍의 지명도를 넓혀가고 있다.

물론 이들 제품에는 모두 한국식약처
의 마크와 GMP마크, 효능표기가 되어
있다.

서 대표는 “한민 소비자 분들의 변함
없는 믿음이 없었다면 미국 전체와 한
국의 서울까지 지사망을 확장할 수 없었
을 것”이라며 다시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세종바이오텍은 현재 한국에서도 자
사 제품을 판매하며 시장을 계속 확대
해가고 있다.

서 대표는 “2008년 본사 창업에 이어,
2010년부터 LA, 애틀랜타, 시카고를 거
쳐 2013년에는 서울에 지사까지 설치하
면서 말로 이루 다하기 어려운 감회에
젖었다”고 밝혔다.

김윤미 기자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전직검사 한인2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같은사고! 다른결과!
ROWE WEINSTEIN & SOHN PLLC
로우와이스틴 & 손로폼
Attorneys and Counselors Law

사고가났습니까? 즉시 연락주세요.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부터 사망사고 까지-

사고처리
v 교통사고 직후 현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v 교통사고, 경찰에 신고 해야 하나요?
v 접촉사고 후 가해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나요?
v 목격자는 필요하나요?

형사처벌
v 교통사고 후 구속되는 경우
v 음주운전 (DUI, DWI)
v 각종 교통 티켓
v 면허정지 (Licenses Suspension)
v 면허취소 (Licenses Revocation)
v 감옥형벌 (Jail Penalty)

패트릭 플로레스 Patrick Flores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pflores@rowepllc.com
노승훈 Robinson S. Rown Super Lawyers The Washington Post Magazine 선정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rrowe@rowepllc.com
로버트 캐들 Robert Cadle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rcadle@rowepllc.com

MD 301-770-4710 VA 703-887-1037 888-340-7583 www.rowepllc.com
909 Rose Avenue, Suite 640 N. Bethesda, MD 20852 701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300 Annandale, VA 22003 2200 Pennsylvania Avenue, N.W., 4th Floor Washington, D.C., 20037 FAX 301-770-4711

미국 호황의 연료, '가계 유동자산' 이 바닥나고 있다

미국 침체 우려가 낳은 발작이 진정됐다. 이달 초 미 노동부가 발표한 7월 일자리 상황이 낳은 경기침체 두려움이 뉴욕뿐 아니라 서울 증시마저 급락시켰다. 순간 미국채 등 채권값이 뛰면서(금리 하락) 엔캐리 자금의 역류 우려까지 증폭됐다. 마치 글로벌 머니 흐름에 거대한 소용돌이가 일어날 듯했다.

그러나 패닉으로 치달을 뻔했던 급락이 순식간에 진정됐다. 심지어 뉴욕 증시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8월 16일로 끝나는 한 주 동안 3.9% 뛰었다. 주간 상승률로는 2023년 11월 이후 약 9개월 사이에 가장 높다. 순식간에 침체 우려는 씻겨나갔다. 미 금융그룹 가운데 잼싸기로 소문난 골드만삭스는 미 경기침체 확률을 25%에서 20%로 낮췄다. 이어 "9월 첫 주에 발표될 일자리 상황(8월 치)이 '요즘 상

황에 비취 좋은(reasonably good)' 수준이라면 침체 확률이 15%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도 했다. 골드만삭스 예상대로라면 제롬 파월(사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실물경제를 침체에 빠뜨리지 않고도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킨 최초의 중앙은행가가 될 듯하다.

가계 유동자산 흐름에 주목하라
그러나 주가가 되살아났다고 미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장이 조용한 틈에 침체 시그널이 있는지를 차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침체 시그널은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중시하는 산업생산과 개인소득, 일자리, 소비지출 흐름의 감소다. NBER 시그널은 이론적으로 타당하고, 분석 방법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이다. 그럴 만하다. 민간기구인 NBER의 경기변동위



원회(BCDC)는 UC버클리대 부부 경제학자인 데이비드와 크리스티나 로머 등 저명한 이코노미스트들로 이뤄졌다. 다만, 위원들이 투자자를 위해 실시간으로 침체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NBER 경기판단이 침체 시작 6개월 뒤나 발표되는 이유다. 게다가 시대별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NBER 지표들이 팬데믹이란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 발생한 뒤 나타난 짧은 침체와 예외적인 호황 등을 세밀하게 보여주지 못한다. 요즘 미 중앙은행과 월가의 이코노미스트들이 팬데믹 이후 특수한 상황에 걸맞은 지표로 '가계 유동자산 흐름'을 주목하는 이유다.

유동자산은 현찰과 순식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다. 통화긴축 초기 미국인들이 사들인 머니마켓펀드(MMF)가 유동자산의 대명사다. 이코노미스트들이 팬데믹 직후 미국인이 왕성하게 소비하는 이유를 찾다가 발견한 지표다. 소비는 미 경제의 최대 성장엔진이

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초과 유동자산(extra liquid assets, 그래프의 실선-점선의 차이)'이 팬데믹이 본격화한 직후 눈에 띄게 늘었다. 소득 상위 20%뿐 아니라 하위 80% 가계의 유동자산도 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샌프란시스코 준비은행은 "팬데믹 기간 이뤄진 미정부의 현금 지원과 주식·주택 등 자산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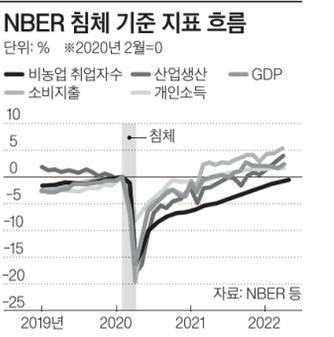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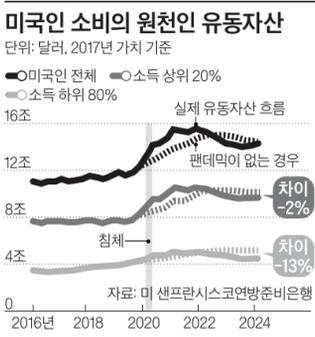
초과 유동자산은 미국인의 왕성한 소비를 가능하게 한 휘발유였다. 실제 미 경제의 최대 성장엔진인 내수가 활발했다. 2021년 이후엔 예외적인 호황 증세까지 보였다. 여기에다 빅테크 주식 붐까지 일었다. 미국인의 초과 유동자산이 더욱 늘어날 수 있었다. '미 경제는 질이 다르다'는 찬사(American economic exceptionalism)가 울려 퍼졌다.

급감한 초과 유동자산
왕성한 소비와 예외적 호황의 대가는 인플레이션이었다. 그 바람에 Fed의 시간이 시작됐다. Fed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돈을 죄기 시작한 2022년 이후 초과 유동자산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샌프란시스코 준비은행에 따르면 요즘 소득 하위 80%의 초과 유동자산은 -13%에 이른다. 상위 20%에 속한 사람들도 초과 유동자산이 마

이너스로 전환됐다. 미국의 최대 성장 엔진을 둘러싼 휘발유가 바닥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인의 신용카드 연체율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소득 하위 80%의 연체율은 2% 중반이다. 상위 20%의 연체율은 1.3% 안팎이다. 초과 유동자산이 많았을 때인 2021년 신용카드 연체율은 사실상 0%였다. 여기에다 최근 석 달 실업률의 이동평균이 최근 12개월 가장 낮은 수치보다 기준치인 0.5%포인트보다 높은 0.53%포인트에 이르렀다. 일자리 침체경보가 울렸다. 미 경제의 예외적인 호황이 끝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파월 의장의 입에 쏠린 논
다만, 미 경제가 침체로 직행할지는 Fed의 통화정책에 달려있다. 제롬 파월 의장이 9월부터 빠르게 금리를 내린다면 실물경제 연속착륙도 가능할 듯하다. 그대가는 안정목표(연 2%)를 웃도는 인플레이션일 수 있다. 미 경제가 의미심장한 갈림길에서 있는 듯하다.

여기서 떠올려 볼 기억이 바로 파월 등이 보인 '2021년 지켜보기'다. 많은 이코노미스트가 파월의 실수라고 지적하지만, 사실 그해 파월 등은 직전에 채택한 '평균 물가 목표제(Average Inflation Targeting, AIT)'를 지켰다. **강남규 국제경제 선임기자**



▶1번 '건강식품'에서 이어집니다
다른 한인들이 마찬가지로 어려운 이 민살이 끝에 마침내 한국으로 다시 진출해 이른바 '역수출'의 작은 위업을 달성했다는 뿌듯함이 차올라왔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한인 비즈니스의 새로운 이정표이자 쾌거라고 할 수 있다.

세종후코이단(면역력, 체질개선, 간기능개선), 세종뇌보감(기억력 개선, 치매예방), 세종기관지청보감(기침, 가래, 비염 등) 등은 미국에서 신소재로 개발한 제품으로, 이제는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역수출되고 있다.

한편 세종바이오텍은 올해 반려견과 반려묘의 특수영양제인 '세종후코펫'을 개발해 반려동물 건강사업에도 뛰어들어 호평을 받으며 지경을 넓혀가고 있다.

미국 유수의 캔디업체가 반려동물

관련 산업으로 전환해 큰 성공을 거두는 등, 가히 미국의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여겨지고 있다.

서 대표는 "세종후코펫을 통해 반려동물 특수영양제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반려동물에 아끼는 한인들이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 절로 힘이 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최고가 세계 최고"라고 단언한다.

과거 일본에서 생산한 건강식품이 최고 대접을 받은 적이 있으나,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건으로 그 명성은 의심으로 바뀌었다.

서 대표는 "한국 제품 중에서도 세종바이오텍 제품이 단연 최고이기에 세계 최고의 제품이라고 자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식품 제조 과정에서 불거지는 원료배합의 불신, 생산시설에 대한 불신 등 여러가지 안타까운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검증되지 않은 건강제품이 범람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세종바이오텍은 16년간 한결같이 품어온 정신 그대로 '한국최고가 미국최고, 미국최고가 세계최고'라는 신념 하에 인류의 백세건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 노력하고 연구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다음은 세종바이오텍 데이빗 서 대표와의 일문일답

Q. 한국에서는 유명한 광고기획사에서 근무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건강식품 회사를 창업하게 된 계기는?

A.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 제약회사 마케팅파트에서 일을 시작했으며, 그 이후에는 현대그룹 계열사 중 광고대행사에서 광고기획자로 전직했습니다.

미국에 이민 온 후 건강제품 관련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

고, 2-3년 준비한 후에, 한국의 검증된 좋은 제품을 미국에 소개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2008년, 세종바이오텍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Q. 세종바이오텍하면 세종송보감이 떠오르는데, 이 제품을 소개한다면?

A. 세종송보감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세종바이오텍의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우리나라의 약재중 솔잎의 효능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국가에도 소나무에 대한 내용이 있을 만큼 소나무는 우리민족과 함께 해 왔습니다. 세종바이오텍의 제품은 천연의 원료들 중 솔잎, 뽕잎, 홍삼, 호박추출물, 유산균, 크렌베리, 버드나무 추출물, 은행잎, 프로폴리스 등 다양한 천연의 원료들로 연구개발되었습니다.

그중 세종송보감은 전통 솔잎을 연구하여 개발된 건강기능식품으로 혈관 건강,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현대

인의 '3고 현상(고혈압, 고혈당, 고콜레스테롤)'과 더불어 기름진 음식습관이나 가족력 등으로 혈액순환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필수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종송보감이 특별히 사랑받는 이유는 우리의 전통솔잎에서 추출한 건강기능식품으로써의 믿음, 의약품제조기준(GMP)으로 검증생산된 점 등의 신뢰 외에도 현대인들의 과거 그 어느때 보다 혈관건강 예방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심이 커졌다는 점이 잘 적용된 것 같습니다.

- >회사 홈페이지: www.sejongbiotech.us
- www.sejongbiopet.us
- >세종바이오텍 분사(애난데일): 703-256-7671
- >LA 지사: 213-383-8899
- >아틀란타 지사: 678-770-3055
- >시카고 지사: 773-399-9800
- >한국지사: 02-6677-7641

김윤미 기자

당신보다 당신의 집을 더 잘 아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저희 슈나이더 내집장만 부동산 팀은 열심히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야의 프로로서 일 잘하는 부동산입니다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승경호 추천 매물

<p>상가 임대수입 발티모어상업건물(임대수입) 1백1십만불, 1층식당+2층+3층아파트</p>	<p>상가 임대수입 DC - 식당입주한 건물 2백6십만불 3000SF 복층, 월순수입 \$11,000</p>	<p>스시 식당 알링턴 버지니아 판매가: 50만 1900 SF, Rent \$8900 연매상 \$1,058,000</p>	<p>에난데일 최고의 상권 단독건물 K-Market 건너편 2500 SF, 식당이나 커피샵, 백주 전문점 하면 좋은자리 임대 문의 바람</p>
<p>상가 임대수입 맥클린, 단독건물, 4백5십만불 6,000 SF</p>	<p>상가 임대수입 상가 8백만불, 비엔나, 버지니아 연순수입 52만불, 8백만불</p>	<p>Beer & Wine Shop 35만불, 주1만8천불 수입 렌트 \$7200, 2400 SF 알링턴, VA, 조건부 임대계약</p>	<p>DC 유명 델리 판매가 55만불 주인없이 운영 정부입주 건물 1층 순수익 = 주인운영 없이 1만불</p>
		<p>Beer & Wine Shop 50만불, 주2만불수입 렌트 \$7200+Cam, 2,300SF 몽고메리카운티, MD, 조건부임대계약</p>	<p>버지니아 상가건물 3백10만불 1.8에이커 Cap Rate 7%, 입차 5개 연순수익 \$218,000</p>

"내집장만"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재원, Start-up 회사, 한국공기업, 사무실, 공장, 창고 등
전문부동산 다량의 기업 성사 기록보유. 미국 전역 가능합니다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ONE REALTYONEGROUP CAPITAL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www.dwellwashington.com

THE SCHNEIDER TEA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식지

자산 유형·목적 따라 다양한 절세 전략 활용

다양한 절세 전략

절세는 투자자나 사업주, 직장인 등 누구에게나 가장 큰 관심사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시중에 알려진 방법들이 모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절세 방법은 각 개인의 상황과 목적 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몇 가지 상황과 목적에 따른 절세 전략들에 대해 알아보자.

▶은퇴계좌

은퇴계좌는 이미 절세를 가능하게 한 '그릇'이다. 적립할 때 소득공제를 받았거나 그렇지 않다면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연기하면서 복리효과를 극대화했다. 이런 은퇴계좌와 관련된 절세 고민은 결국 돈을 쓸 때 대한 것이다. 어떻게 인출해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에 대한 고민이다. 그래서 로스(Roth) 계좌로의 전환이 많이 언급된다.

전통적인 은퇴계좌를 로스(Roth)로 전환하면 나중에 잔액 전체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인출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방법은 전환하는 지금 당장 먼저 세금을 내야 하지만 최종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체로 유리할 수 있다. 앞으로 세율이 어떻게 바뀔지 불안한 측면도 로스(Roth) 전환이 주는 장점을 배가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앞으로 전반적인 세율이 오르면 지금 전환하는 것이 기다렸다가 나중에 하는 것보다 확실히 나을 수 있다. 하지만 계산기를 꼭 두드려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의 세율은 물론, 남은 투자 기간, 시기와 금액 등 변수들이 있고, 이를 전체적으로 다 고려하면서 접근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전환이 될 것이다.

▶일반 투자계좌

일반 투자계좌는 이미 늘 세수에 노출된 계좌다. 펀드나 주식 등 증권을 사고팔아 수익이 발생하면 매년 세금을 정산해야 한다. 물론, 이는 자본이득세 혹은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득세보다는 세율이 낮은 편이다. 그래서 일반 투자계좌는 투자소득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내지 않거나



고수익 주식 등 일반 투자 자산 경우 자본이득세 혹은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어 절세 전략이 필요하다.

[로이터]

로스(Roth)로 전환 잔액 전체 세금 내지 않고 인출 사용 투자성 연금 수익 세금 연기 가능해 자금 증식에 유리 가치 오르거나 오를 자산 DST·IDIT로 소득세·상속세 절감 부동산 양도소득세 연기하는 1031, 1031 DST 등도 활용

줄이는 것이 주요 절세 현안일 것이다. 이는 결국 투자성 연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연금 안에서 발생한 수익은 전통적 은퇴계좌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연기하며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자금증식이 주된 목적일 때 적절하다. 그리고 일반적인 투자성 연금보다는 순수 투자용 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인 투자성 연금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 비용을 낮추면서 투자를 통한 수익률은 높이는 게 주된 관심사라면 이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자금증식보다는 은퇴 후 소득원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 지수형 연금 등을 통해 평생 보장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가치 많이 오른 자산

구입한 후 시간도 많이 흐르고 그만

큼 가치가 많이 높아진 자산이 있다면 좀 더 고급스러운 방법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경우 자본이득세, 혹은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은 부동산일 수도 있고 사업체일 수도 있다. 심지어 주식 등 일반 투자자산일 수도 있다.

해당 자산을 처분하고 싶어도 팔고 남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면 DST(Deferred Sales Trust)를 고려해볼 수 있다. DST는 일반적인 할부판매와는 다른 것이다. 배경이 되는 기본 개념은 비슷하지만, 설립과 운영 메커니즘은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다. 국세청(IRS)은 할부판매 방식을 통한 사실상의 '탈세' 시도에 대해서는 확실히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DST는 이와는 다른 전략이다.

중요한 것은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할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 문제 해결이 주된 목적이라면 DST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산을 팔아 이익을 실현하지만 처분한 대금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고 DST라는 트러스트가 받게 하는 게 이 방법의 핵심이다. 대신 투자자는 매각대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일정 기간에 걸쳐 회수하게 된다. 투자자에서 채권자로 역할이 바뀌는 것이다.

트러스트는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이 팔리고 넘어온 대금을 받는 대신 이를 정해진 기간에 걸쳐 투자자에게 이자와 원금 형태로 상환할 의무를 갖는다. 투자자는 보통 평소에는 이자를 받고 원금은 정해진 채권 계약서에 따른 만기가 올 때 목돈으로 받는 식으로 디자인된다. 어쨌든 이 방식은 기본적으로 자본이득세 혹은 양도소득세를 미

루는 것이다. 면제는 아니나 장기간 연장할 수 있게 해준다. 매각 대금에 대한 세금부담 없이 새로운 곳에 투자해 지속적인 자금증식을 꾀할 수 있다는 점이 실은 가장 큰 '혜택'일 것이다

▶가치가 많이 오를 자산

이미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을 처분하면서 절세를 원한다면 DST가 유효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처분하길 원하지 않는 자산이 있고, 이 자산이 앞으로 가치가 더 많이 오를 것이라 기대하는 경우라면 IDIT(Intentionally Defective Irrevocable Trust)가 유용할 수 있다. IDIT는 해당 재산을 트러스트에 매각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역시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상환하는 계약을 동반하게 되는 데 이 방법은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 당사자 간 거래로 보기 때문이다. 내가 나한테 매각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해당 트러스트로 넘긴 자산이 이후 발생시키는 수익에 대해서는 투자자 본인이 발생시킨 투자수익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혜택이 없는 셈이다.

그런데 상속세 측면에서는 상당한 혜택이 있을 수 있다. 원래 재산의 가치와 이자만큼은 세금 없이 다시 가져오지만, 추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면서 간다. 대신 트러스트에 남은 불어난 자산은 모두 상속자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쉽게 말해 지금 500만 달러 가치의 자산이 10년, 20년 후 2000만 달러 혹은 그 이상 가치가 된다고 가정하면 현재 가치를 제외한 나머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 재산이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를 상속자산 가치를 동결한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자산 유형에 따라 목적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절세전략들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주들이 펜션 플랜 등을 통해 소득공제를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한 절세전략 중 하나이고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다.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연기하는 1031, 1031 DST, 고속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는 '원가 분리' 등도 중요한 절세 전략들이다. 현재의 재정 상황과 보유하고 있는 자산 유형들을 확인하고 지금 혹은 미래에 어떤 절세 방법이 필요하고 가능할지 미리미리 검토해보자.

켄 최 아메리츠에셋대표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nol ~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 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고크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보험 상식



알렉스 한
재정보험 전문가

한인 베이비부머 은퇴계획

자녀 교육 집중으로 은퇴자금 부족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열심히 자녀들을 키우며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온 한인 이민 1세대들에게 가장 가혹하게 닥쳐온 과제는 바로 노후대책이다. 자식 뒷바라지에 온 힘을 쏟은 결과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나와 자리를 잡아도 정작 자신들의 노후대책에는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이다.

미국인이 가진 재산의 70% 이상을 소유한 베이비 부머들이 차츰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노인들을 위한 실버산업이 주목받는 것도 당연한 현상이다. 얼마 전 한국의 한 뉴스 프로그램에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처한 상황을 심층 보도했다. 내용 인즉슨 이 세대들이 부모를 공양하고 자녀를 교육하는 데 일생을 바치고도 정작 자신들의 은퇴 준비에는 소홀해서 앞으로 크게 걱정된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은 이미 미국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때문이다. 부모에 대한 부양을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이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자식들에게 기대거나 손 벌리지 못하는 개인 세대들은 눈부신 경제 성장의 수혜자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스스로 노후를 개척해야 하는 운명을 가진 세대이다. 최근의 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18세부터 34세까지 성인의 34%가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엄청난 학자금 대출로 빚을 지고 있는 데다 비싼 주거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부모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자신의 부모들로부터는 받아보지 못했던 도움을 자녀에게 주기 위해 은퇴용 자금을 쓰거나 은퇴연령이 지난 이후까지 일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년층을 위한 저축성 생명보험 가입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이와 맥락을 함께한다. 과거 생명보험은 가정들이 만약의 불행에 대비해 가족을 지키고자 가입하는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자녀의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로 아예 부모들이 자녀가 어렸을 때 가입해주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의 한인 커뮤니티도 이런 추세에 동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돈을 씬으로 인해 은퇴자금 부족으로 노년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셜 시큐리티 펀드는 10년이 같지 20년이 같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젊어서야 없으면 벌어서 산다고 하지만 늙고 힘없어진 이후 재정적 어려움에 부딪치는 것만은 미리 막아야 한다. 그래서 노후 대책은 빨리 시작할수록 좋은 것이다.

세법 상식



윤 주 호
CPA

해외근로소득공제

한국 거주 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해당
1년 최대 12만불까지 과세 소득서 제외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세계 어느 나라에 거주하더라도 전 세계의 모든 소득에 대해 국제청 (IRS)에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로 소득 보고하는 것이 기본인데 영주권자가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한국 거주자로 인정되면, 미국에는 비거주자 (Nonresident alien)로 세금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의 비거주자로서 세금 신고를 하면 이민법상 영주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 등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과 관련해 미국에 세금 신고할 때 적용할 수 있는 '해외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에 대한 질문도 듣게 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12만 달러(2023년 기준) 이하면 미국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외근로소득공제란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 중 1년 최대 12만 달러까지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이란 급여, 커미션 소득, 사업 소득 같은 인적용역(personal service)의 대가로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불로소득이라고 알려진 이자, 배당, 양도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은 이 공제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불로소득은 전액 과세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 해외근로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외근로소득공제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납세지(tax home)가 한국 등 해외에 있어야 하고, 동시에 아래의 요건들을 갖춰야 합니다. 납세지(tax home)란 세금을 내는 장소로 일반적으로 주된 영업장소를 말하며,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첫째 조건으로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EARNED INCOME', 즉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bona fide resident test나 physical presence test(330일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Bona fide resident test'란 과세기간 내내 실질적으로 해외에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여행 등으로 단순히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외국의 bona fide resident가 되는 것은 아니며, 거주도 및 거주목적, 가족의 거주지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Physical Presence Test(330일 기준)'란 해외에 거주하는 의도나 목적 등과는 상관없이 일정 기간을 연속해서 12개월 중 330일 이상 해외에 거주하면 해외거주자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한국에 거주하면서 1년 중 잠깐씩 미국을 방문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많은데 이들 대부분은 'Physical Presence Test(330일 기준)' 규정에 의해 해외 거주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중 최대 12만 달러(2023년 기준)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개인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부부일 경우 둘 다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각각 최대 12만 달러씩, 합산하면 24만 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라서 납세자가 이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선택할 때만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이 규정을 적용하면 그 이후 계속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만약 더는 이 규정을 적용하고 싶지 않다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나 한번 취소하면 IRS의 승인 없이는 향후 6년간은 다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해외근로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한 납세자는 한국 등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한 해외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인식될 경우에 주소세제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그런 주의 거주자에 해당하면, 연방소득세는 내지 않더라도 주정부세금은 납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능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리치몬드 페닌슐라 상담원영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칼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걱정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변호사 임종범 *
* 사무장 김진주 *

야망 품고 여성들 모여든 그곳



호텔 바비존
폴리나 브렌 지음
홍한별 옮김
니케북스



1920년대에 문을 연 바비존은 독립적인 삶을 살고 싶은 여성들을 불러 모았다.

[사진 니케북스]

‘광란의 20년대(the Roaring Twenties)’라고 불리던 시기인 1927년 미국 뉴욕 맨해튼에 ‘여성 전용’ 바비존(Barbizon)호텔이 들어섰다. 센트럴파크 동쪽 렉싱턴애버뉴와 이스트63번가가 교차하는 곳에 건축된 이 독특한 호텔은 여성 전용이란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파란만장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원래 23층 높이에 720개 객실로 설계된 이 호텔은 2007년 ‘바비존/63콘도 미니엄’이란 고급 주거시설로 재개장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호텔 바비존』은 이 유서 깊은 건물이 가진 미국의 현대사적, 여성사적, 건축사적, 사회변동사적 의미를 꼼꼼하게, 그리고 매우 재미있게 다뤄준 드라마다처널 펄낸 걸작이다. 뉴욕 배서칼리지 교수인 지은이 폴리나 브렌은 역사가이자 인터뷰어이자 인터넷 탐정이 되어 이 호텔과 관련된 스크랩북, 편지 묶음, 사진 등 각종 자료를 대량 발굴하고 감춰진 비사를 풀어냈다.

지금 시대엔 상상하기 어려운 여성 전용 호텔이 왜 100년 전 뉴욕에 들어서게 됐는지 이해하려면 당시의 시대상을 먼저 알아야 한다. 더는 딸, 아내, 어머니로만 머물고 싶어 하지 않았던 이른바 신여성은 19세기 말 등장했다. 이들은 가정 밖의 공간을 탐험하고 싶어 했고, 독립을 원했고, 발목을 붙잡는 모든 것로부터 해방되고자 했다. 1920년 수정헌법 제19조가 통과되면서

미국 여성들은 참정권도 얻게 됐다. 이제 세상이 바뀔 때가 된 것이다.

바비존에 앞서 뉴욕에는 역시 여성 전용으로 마사워싱턴호텔, 앨러튼호텔, 미국여성협회(AWA)호텔 등이 있었다. 주로 뉴욕의 전문직 여성들을 위한 앨러튼이나 AWA호텔과 달리 바비존은 뉴욕에서 꿈을 실현해 보겠다고 결심한 미국 전역 젊은 여성들의 ‘신전’이었다.

바비존호텔은 여성 고객들에게 보호와 안식을 약속했다. 엄격하게 여성 전용이었고 남자들은 로비까지밖에 들어올 수 없었다. 몇몇 남자들이 배관수리 공이나 왕진 온 산부인과 의사로 가장하고 침투를 시도했다가 실패하기도 했다고 전해져 온다.

1930년대에는 캐서린 김스 비서학교 학생들이 3개 층을 기숙사로 사용했

으며, 세계 최초의 모델 에이전시 파워스모델은 소속 모델들에게 바비존 객실을 제공했다. 바비존의 별명 ‘인형의 집’이 딱 들어맞는 모양새다. 인근 메디슨애버뉴의 유명 잡지 ‘마드무아젤’의 객원 편집자들도 이 호텔에 묵었다.

바비존에는 배우, 가수, 예술가, 작가 지망생들이 가득했다. 침몰한 타이태닉호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가라앉지 않는’ 폴리 브라운은 최초의 바비존 거주자 중 한 사람이었다. 배우 그레이스 켈리, 리타 헤이워스, 캔디스 버건, 재클린 스미스 등과 작가 실비아 플라스, 디자이너 넷시 존슨도 주요 고객들이었다. 한때는 이들도 투숙객의 인성과 도덕성을 보증하는 추천서와 희망을 품고 바비존에 갓 도착한 젊은이들 중 하나였다.

대공황과 2차 대전 등을 거치며 위기

속에도 바비존은 주인을 바꿔가면서 곳곳이 살아남았다. 그러나 1980년대 경연안으로 더는 버티지 못하고 남성에게도 문호를 열게 됐다. 바비존으로 상징되는 여성운동이 여성을 따로 격리해야 할 필요를 삭제시킨 결과이기도 했다. 장기 투숙 여성 고객, 이른바 ‘그 여자(the Women)’들은 남자 투숙객을 받으면 떠나겠다고 위협했지만 결국은 남았다. ‘그 여자’들 일부는 지금도 바비존/63콘도미니엄의 새로 단장한 4층 전용층에서 살고 있다.

바비존은 20세기 대부분 동안 여성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곳, 자기만의 방을 갖고 자기 삶을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는 곳이었다. 미국에서 2년 전이 책이 나온 후 바비존은 뉴욕의 새 명소가 되어 관광객들의 발걸음과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한다.

한경환 기자

응원하고 격려하는 고수들의 말과 지혜



결국, 잘 흘러갑니다
백성호 지음
중앙북스

한국전쟁 중 얼어붙은 남한강을 건너는 국군의 행렬. 책의 한 장면은 여기에서 시작한다. 거기에 우리가 아는 고(故) 정진석 추기경이 있다.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다니다 징집된 학생이었다. 발밑의 얼음이 깨졌고 부대원들이 물에 빠졌다. 정 추기경의 바로 뒤부터였다. 앞뒤 양옆에서 수많은 죽음을 보고 수도가 시작됐다.

저자는 정 추기경을 인터뷰하며 그 뒤의 큰 삽자기를 봤다고 했다. “나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다”라 고백하는 추기경의 뒤편이었다. 천 년 살듯이 사는데 백 년도 못 사는 사람들에게 저자는 질문을 던진다. 삶에는 끝이 있으니 시간이 다 가기 전에 의미를 찾아야 하지 않겠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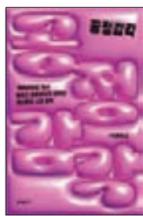
그 의미를 찾도록 격려하는 책이다. 종교와 사상을 넘나들며 수도자들이 생각했던 길을 짚어본다. 고등학생이던 법륜 스님의 장면도 있다. 그는 도문 스님이 던진 “어디에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라는 릴레이 질문에 “학교요” “집이요”를 반복하다 존재에 대한 성찰을 시작했다. 저자가 고수 17명에게 행복에 대해 질문한 경험도 전한다. 심리학자, 천체물리학자, 미학자, 생물학자 등의 답에서 저자는 공통분모를 찾았다. ‘콤비네이션 피자’다. 고통의 조각과 행복의 파편이 섞여 있는데 무얼 골라 먹을지는 내 선택이란 거다. 언젠가 올 행복을 기다리는 대신 이미 있는 그 조각을 집어 드는 일이 시작이다.

대체로 응원이지만 따끔한 문장이 곳곳에 있다. 한국에 유학 온 이슬람 학생의 강연에서는 내 믿음만 절대적이라 보는 우리의 오류를 만난다. 기도내 소원을 욕여넣지 말고 하나님의 뜻부터 물으라는 이재철 목사의 전언도 아프다. 자신을 버려야 실패도 받아들일 수 있다. 저자는 이 자유로운 상태를 그물 사이로 부드럽게 빠져나가는 바람의 이미지로 그려낸다. 이런 모든 이야기가 쉽게 출발한다.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까’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할까’ 같은 질문을 살마리 삼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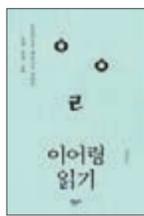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에 연재한 내용이 바탕이다. 저자의 관련 연재는 더중앙플러스에서 계속 진행 중이다.

김호정 기자

책꽂이



공경감각(나임윤경 외 지음, 문예출판사)= 지난해 대학교 청소년동자들의 집회가 수업권을 침해한다며 몇몇 학생이 고소와 소송에 나선 데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사회문제와 공정’ 강의를 진행한 연세대 문화인류학 교수와 수강생들의 글 모음. 소수자 혐오 등 대학가 공론장에 빈번히 등장하는 반지성주의 주장과 논리에 대한 치열한 비판이 담겼다.



이어령 읽기(김성곤 지음, 민음사)=문학평론가이자 인연이 오랜 저자와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문학·문명·인공지능·생명사상 등을 주제로 이어령(1933~2022) 선생이 들려준 이야기를 구술 형식으로 생생히 전하며 주제마다 저자의 글을 결합해 완성한 이어령론. 이어령은 말과 글의 다름을 지적하며 “문학은 유서가 아니라 유언과도 같다”고 했다.



서사의 위기(한병철 지음, 최지수 옮김, 다산초당)=『피로사회』 등의 저서로 주목받은 재독 철학자의 신작. 전통적 지식 축적된 ‘서사’와 ‘스토리’를 구분하는 저자는 스토리텔링이 스토리텔링이 되어가는 양상 등을 지적하며 언뜻 스토리텔링이 넘쳐나는 듯 보이는 듯 오늘날의 사회를 ‘스토리 중독 시대’이자 ‘서사의 위기’라고 바라본다.



성스러운 자연(카렌 암스트롱 지음, 정영목 옮김, 교양인)=“우리는 자연을 단지 자원으로만 취급하여 살살이 뒤지며 영망으로 만들었다.” 최근의 환경 위기를 언급하며 이런 진단을 내놓는 저자는 세계적 종교학자. 이 신작은 여러 종교와 낭만주의 시인들의 작품을 아우르면서 자연의 성스러움과 경이로움에 대한 인간의 오랜 시각을 새롭게 불러낸다.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료 의사가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여 치과의사상 수상

무보험자를 위한 무이자 Plan, Care Credit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www.naturadent.net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인비절라인 Invisalign

Science in Every Smile

▶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natura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페어팩스 스테이션 싱글홈

\$1,250,000

**방4/화3.5/차고2. Many Upgraded. ** 주인이 잘 관리한 집.

페어팩스 싱글홈

\$750,000

**방4/화3. Ranch 스타일. 0.2 Ac. ** 굿로케이션, 조용한동네. Move-in Ready

페어팩스 타운홈

\$699,000

**방3. 화 2.55/차고 2 ** Many Upgraded (지붕. HVAC. 워터히터. Bathrooms)

센터빌 타운홈

\$569,000

**방4/화3.5/2 Assigned. 세지붕. ** 지하 Full Bath. Walkout 업그레이드 Bath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김경아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판사와 법무부 심의관 공무원으로 20여년 일하다가 올해 초부터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필자가 이제 진짜 변호사가 되었구나, 하고 느낀 순간들 중 하나가 교도소에 가서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를 접견할 때이다. 교도소에 갈 때마다 이를 운영하는 데 수만 명의 공무원이 투입되고 엄청나게 많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꼭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 효과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 교정이다. 죄를 지은 사람이 사회로 돌아왔을 때 또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사람을 바로잡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죄를 지은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일에만 관심을 둔다. 나도 판사일 때 그랬다. 그러다 법무부에서 일하면서 교도관들을 만나보니 이들은 정반대로 수용자들을 언젠가는 사회로 돌려보낼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 이들에게 배운 것 중 하나가 '교도소는 감옥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감옥은 수형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두어 두는 곳인 반면 교도소는 과학적, 합리적 방법으로 수형자를 '교화'하는 곳이라는 뜻이다. 교도소를 '감옥'이라고 부르면 교도관들이 달가워하지 않는다. 감옥은 오로지 고통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던 구시대적인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니 아무리 죄인을 교도소에 오래 보내더라도 사형수나 무기수가 아닌 이상 그들은 영원히 교도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사회로 돌아와서 우리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감옥에 오래 보내는 것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사회로 돌아왔을 때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첫값으로 고통만 겪게하는게 최선일까 교도소가 범죄자를 어느 정도 교화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어느 정도 답을 제공해주는 통계가 재범률(재범역률)이다. 교도소 출소 후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지어 교도소에 수감되는 사람의 비율인데 2021년 현재 24.6%이다. 그러니까 교도소 출소한 4명 중에서 3년 안에 1명이 다시 수감된다는 것이다. 한 사람이 교도소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 전에 범죄를 또 저지르고, 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또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상 교도소를 나가자마자 1~2년 안에 또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수형자가 겪는 고통 지나치면 교화보다 적개심 더 키울 우려



2017년 말 방영된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 감옥을 배경으로 사람 사는 모습을 그렸다. 실제 감옥은 이보다 훨씬 열악하다. [중앙포토]

3평 공간서 5~6명이 짐통더위 견뎌 출소 4명 중 1명 3년 안에 다시 수감 유럽 같은 호화 시설은 아니라도 기본 욕구 해소할 최소한 공간 필요

어떻게 하면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을 낮출 수 있을까. 사람들은 대체로 교도소 수형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으면서 지내기를 바라는 것 같다. 값야 할 짓 값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도 같은 입장

이다. 교도소 생활이 결코 편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인권이나 감정이 범죄자의 인권이나 감정보다 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들이 그저 고통을 겪어만 하는 것이 왕도일지, 그들이 아니라 선량한 시민들을 위해서 보다 이로운 길인지는 조금 다각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령, 수형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는 요즘같이 더운 여름이다. 감방에는 선풍기가 한 대 정도 있는데 새벽에는 끈다. 더위가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현재 교도소가 심각한 과밀수용 상태이기 때문이다. 2023년 8월 기준 교도소 정원은 4만9600명인데 실제 수용인원이 5만8133명으로서 수용률

이 117.2%다. 현재 대략 1평(3.3㎡)이 조금 넘는 4㎡ 면적의 거실에 2명, 3평 남짓한 거실에 5~6명이 지낸다. 거실 안에 화장실도 있어야 하므로 실제 생활공간은 더 좁다. 잠을 잘 때도 옆 사람과 딱 붙어서 자기 때문에 서로 쳐다보면 불편해서 두꺼운 종이로 칸막이를 만들어놓고 자기도 한다. 여름에는 사람이 열과 냄새를 뿜어내므로 사람이 존재 그 자체로 미워진다고들 한다. 그러니 쉽게 짜증이 나서 수형자 간에 다툼도 많아진다.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도소를 더 지어야 하는데 교도소를 받기는 곳이 없어 어렵다. 교도소가 덥다, 좁다 하는 말은 국민들에게 분노만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교도관들의 말을 들어보면 과밀수용이 심하면 교정 프로그램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 수형자가 겪어야 하는 고통이 지나치게 크면 우리 사회나 정부에 대한 적개심이 커져서 출소하자마자 범죄를 저지를 유인이 높아진다고도 한다.

노르웨이의 할덴(Halden) 교도소는 높은 울타리, 감시탑, 철조망 대신 잔디와 나무가 가득한 안전한 풍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아름답고 깨끗한 최신식 건물 속에서 수형자들은 화장실·냉장고·텔레비전은 물론 비디오 게임 기까지 갖추어진 방에서 지내고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부엌에 가서 다른 수형자들과 함께 요리를 해 먹을 수도 있고, 마트에 가서 요리에 필요한 재료나 그 밖의 음식을 구매 포인트가 내장된 카드로 구입할 수도 있다. 음악 스튜디오에서는 전자기타를 연주하거나 드럼을 칠 수 있고, 식사는 셰프가 일반 레스토랑 수준의 음식을 만들어 준다. 대형 자동차 정비소 같은 환경에서 자동차 수리 직업교육이 이루어진다. 교도관들은 수형자를 '감시'한다는 개념이 없고 대신 그들과 '상호작용'에 주력한다. 수형자 1인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12만 달러이니, 우리 돈으로 1억4000만원 이상이나 되는 셈이다. 노르웨이는 최고 형량이 징역 21년 이므로 아무리 악독한 범죄자라도 21년만 지나면 사회로 돌아와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된다는 것을 노르웨이 국민이 알고 있다. 이러한 교도소가 세워진 이후 노르웨이에서 재범률이 기존의 70%에서 20%대로 내려갔다.

필자가 구유고슬라비아 전범을 재판하는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유엔 국제형사재판소(ICTY)에 파견 근무를 할 때 이런 말이 있었다. "헤이 /



1 노르웨이 할덴 교도소의 독방으로 일인용 침대와 책상이 있다. 노르웨이 최악의 테러범 안데르스 베링브레이빅이 한때 수용됐던 교도소다. 2 한국 교도소의 수용시설. [중앙포토]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 안 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중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션리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여권 사진 | 가족 사진 | 아기 사진 | 커플 사진 | 반려동물 사진 | 기념일 사진

한국에서 유명한 셀프포토 스튜디오가 6월에 센터빌 오픈했습니다!

“나만의 방 안에서 그 누구 눈치 안보고 편하게 찍을 수 있는 셀프 포토 스튜디오에 환영합니다”

예약 문자 / 전화: 703-400-7099

14260M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SELFOTo
STUDIOS

www.Selfotostudios.com

온라인 예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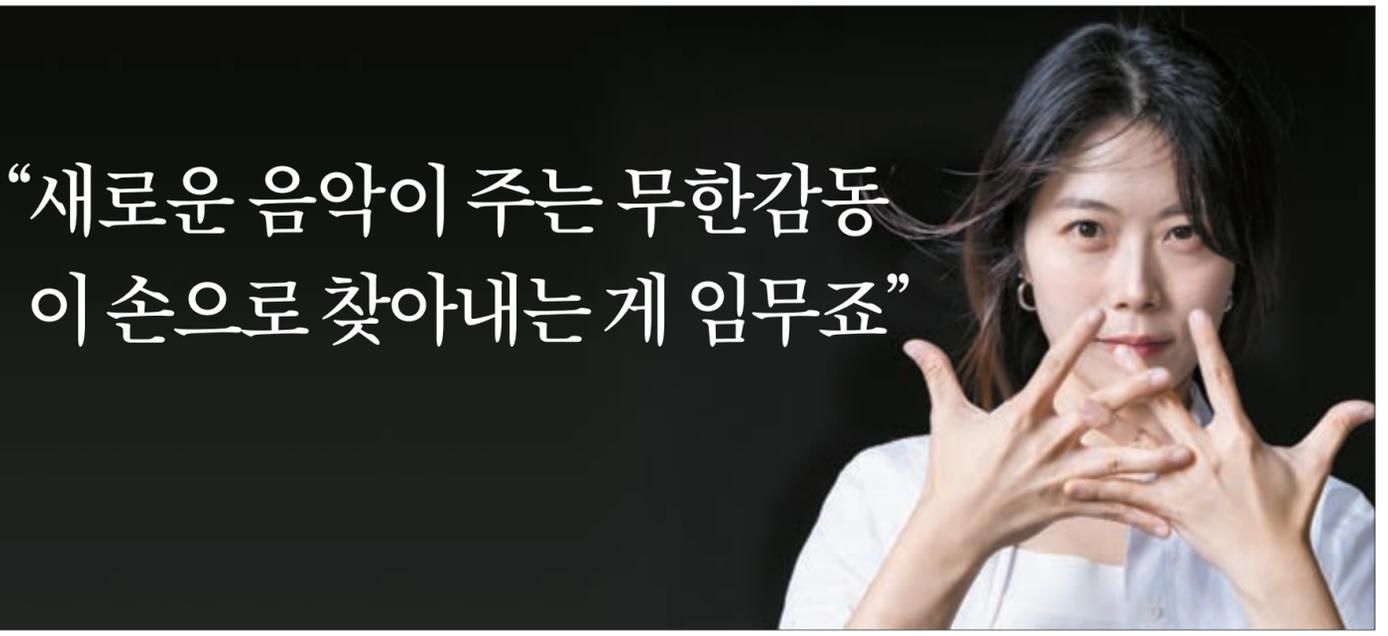
“사실은 연주자들이 못한다고, 안 하겠다고 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피아니스트 김혜진(37)이 올해로 3년째인 음악제에 대해 설명하며 말했다. 그는 2022년부터 여름마다 ‘랑데뷰 드 라 무지크’ 페스티벌을 열고 있다. 예술감독을 맡아 매해 주제를 정하고 연주할 곡들을 고르며 연주할 음악가들을 선정해 프로그래밍한다. 지난 16일 서울 삼암동에서 만난 그는 “새로운 곡을 소개하는 음악제로 차별화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간 연주되지 않았던 새로운 곡들을 골라 소개하다 보니 연주자들이 낯설어할까 걱정이었다고 했다.

‘랑데뷰’ 페스티벌은 한국 초연곡을 꾸준히 소개했다. 첫 해에 4곡, 이듬해 2곡을 한국에서 처음 연주했다. 22~25일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인촌아트홀, IBK챔버홀, 리사이틀홀에서 열리는 올해 음악제에서도 그동안 국내 연주된 적 없었던 4곡을 초연한다. 영화 음악으로 유명한 존 윌리엄스의 ‘아름답고 간결한 선물’을 비롯해 작곡가 윌리엄 그랜드 스타일의 ‘파마나 댄스’, 미국의 1980년대생 작곡가 리나 에스메와 제시 몽고메리의 작품들이다. 특히 존 윌리엄스의 음악은 2009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취임식을 위해 작곡한 것으로 한국에서는 실연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

김혜진이 고르는 한국 초연곡들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다. 이유 없이 난해한 대신, 신선한 아이디어와 시도가 이어지는 듣기 좋은 작품들이다. 또한 특별히 미국에서 활동하는 작곡가들의 신작이 많다.

“9년 전부터 로스앤젤레스(LA)에 살고 있어요. LA는 새로운 것에 대한 탐닉이 활발해요. 젊고 덜 알려진 작곡가



피아니스트 김혜진은 랜데뷰 기간 동안 고민해 음악가들과 페스티벌을 2022년 시작했다. “한 무대에서 연주하는 일이 그리웠다”는 그는 3년째인 올해까지 한국 초연곡을 잇따라 들려준다.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새로운 음악이 주는 무한감동이 손으로 찾아내는 게 임무죠”

‘랑데뷰 페스티벌’ 음악감독 김혜진 음악제 3년 동안 한국 초연 10곡 난해한 곡 대신 듣기 좋은 작품 발굴 “독주회와 다른 협업만의 희열 느껴”

가를 발굴하고 새로운 곡을 위촉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죠. 거기에서 영감을 얻은 게 사실이에요.”

그는 현재 LA의 예술학교인 콜번스쿨의 교수이며, 음악가들의 모인인 살라스티나 뮤직 소사이어티의 상주 피아니스트다. 김혜진은 “특히 살라

티나에서 젊은 작곡가들의 새로운 곡을 많이 연주하면서 현대음악에 대한 난해하다는 편견이 많이 깨졌다”고 했다. “어렵지 않으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작품을 많이 찾아내는 일이 저의 임무죠.”

김혜진은 혼자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로 오랜 시간 살아왔다. 서울예술고등학교 재학 중 베를린으로 유학해 한스아이슬러 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까지 마쳤다. 17세에 이탈리아의 부조니 국제 콩쿠르에서 최연소 3위에 입상하며 주목받았다.

“다른 악기 연주자처럼 오케스트라에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게다가 내성적인 편이기 때문에 음악제를 만들 생각이 하지 못했다”는 그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랑데뷰’ 음악제를 시작했다.

“연주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여럿이

한 무대에서는 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같이 연주하는 일이 그리워졌어요.” 음악제 첫 해에는 연주자 8명으로 시작했고 올해는 40여명이 모인다. “첫 해에 총 4회 연주를 했는데 다 마치고 나서 독특한 희열을 느꼈어요. 혼자서 독주회를 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쁨이었죠. 연주자끼리는 동지애를 느끼고 관객에게는 무한한 감사가 솟아올랐어요.”

김혜진은 “앞으로도 새롭게 소개할 작품들이 아주 많다”고 했다.

“매년 공연에서 연주하고 싶은 새로운 곡들을 그때그때 메모해놓고, 거기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또 새로운 음악들을 찾게 돼요. 이제는 한국 작곡가들의 새로운 곡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는 ‘랑데뷰 드 라 무지크’라는 제목에 대해 “음악 안에서의 만남을 생

각하며 지었다”고 했다.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실내악 단체도 있지만, 우리는 새롭게 만나 신선한 곡들을 연주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요. 그럴 때 생기는 새로운 기운과 에너지가 있어요. 또 어떤 청중이 오느냐에 따라 음악의 분위기도 바뀌죠. 음악이 다양한 만남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진도 올해 음악제에 피아니스트로 참여한다. 바이올리니스트 김현미·백주영·정주은, 첼리스트 김민지·이호찬·이경준, 피아니스트 김준형·예수아·황건영, 클라리네티스트 김상윤 등과 함께다. 또한 지난달 베를린 슈타츠카펠레 부악장으로 임명된 바이올리니스트 박규민, 6월 프리미엄 파올로 보르치아니 국제콩쿠르에서 2위에 오른 이든 콰르텟의 연주도 들을 수 있다. 김호정기자

그에는 두 개의 힐튼이 있다. 하나는 시내에 있는 진짜 힐튼 호텔이고, 또 하나는 유엔의 감옥인 UNDU(UN Detention Unit)를 가리킨다. UNDU의 독방에는 침대·책상·세면대·화장실·TV·컴퓨터가 있고, 일과 중에는 수감자들이 다른 수감자들과 휴게실에서 TV를 보거나 농구를 하거나 영어나 컴퓨터 강좌를 듣거나 취미활동을 한다. 각 층에 공중전화기 있어서 수감자 가족 등에게 전화를 걸 수도 있다. 면회는 한 달에 7일간 가능한데 1회 면회는 8시간까지 허용된다(우리나라는 10분이다). 배우자가 오면 한방에서 같

이 지낼 수도 있어 수감 중에 아이를 얻은 피고인도 있다. ‘인종청소’와 같은 제도사이드를 저질러서 결국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스톱스카공화국의 전 대통령 라도반 카라지치가 자신이 먹는 음식이 거의 다 전자레인지로 데운 것이라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자연식을 달라는 신청을 해서 열린 재판을 직접 지켜보기도 했다(결과는 물론 기각).

호텔 같은 노르웨이, 심리 치료하는 독일 한편, 독일의 슈탈름슈타트 교도소에서는 수형자에 대한 집단심리치료 프

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심리치료 전문가가 인도하는 가운데 10명 안팎의 수형자들이 함께 모여서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을 상징하고 역할극을 하거나 그 상황에 대한 의견이나 감정을 서로 나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의자에 무례하게 발을 올려두고 있을 때 그에게 분노를 표출하거나 위협하지 않고 의자에 앉는 것을 한 명씩 돌아가면서 시도하게 하고 그의 행동에 대해 다른 수형자들이 소감을 말하도록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범죄자 가족이나 피해자의 입장도 생각해보도록 한다.

노르웨이·유엔·독일 교도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그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피해자 가족은 극심한 고통에 평생 시달리는데 살인범은 최신식 시설에서 편하게 지내는 것이 ‘정의’의 관점에서 옳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수준의 교도소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죄인을 교도소에 오래 보내고 고통을 가하기만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가령 교도소에서의 일상은 엄정한 규율 속에서 살아가게 하더라도, 직업교육

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현재 우리 교도소에서 제빵·제과·용접·미용·보일러 시공 등 직업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상자나 횟수, 교육하는 기술의 수준 등의 측면에서 제한이 많다고 한다. 예산, 시설 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원하는 수형자에게 보다 고급 기술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어야 재범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범죄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선량한 시민을 위해서라도.

정재민 변호사·작가

악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8월 HOT 리스팅

부동산 투자, 임대주택 관리의 어려운 고민, 악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과 의논해주세요.

<p>금매</p> <p>\$69만 우드브리지 니븐 원형 싱글홈 방4+ 욕3 차고2</p>	<p>임대</p> <p>애쉬번 타운홈 \$3500 방3+화3차고 2 즉시 입주가능</p> <p>비엔나 \$3500 방3+/화3 차고 1 즉시 입주가능</p> <p>라벨 \$3,500 방3+/화3 고 1</p>	<p>페어팩스</p> <p>타운홈 방3+화3, 차고1 \$70만불대</p> <p>타운홈 방3+화3, 차고2 \$80~\$85만불대</p>	<p>센터빌</p> <p>타운홈 방3+화3 \$45만불~\$60만불</p> <p>타운홈 방3+화3, 차고1 \$60만불대</p> <p>타운홈 방4+화3, 조지메이슨 대학 부근 \$630,000</p>
--	---	---	--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신성재 변호사 교통사고 / 개인파산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시십시오.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창단 첫해 0-34 패배... 25년 후 기적을 쓴 교토국제고

재일한국인들이 설립해 운영 중인 교토국제고가 일본 최고 권위의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일명 여름 고시엔(甲子園)대회 결승에 진출했다. 23일 오전 10시부터 간토다이이치고와 우승 트로피를 놓고 마지막 일전을 벌인다.

이 학교에 야구부가 처음 만들어진 25년 전에 이런 날이 오리라고 예상한 관계자들이 있었을까. 당시 교토국제고는 '교토한국학원'이라는 이름의 외국인학교였다. 일본의 학교교육법상 일반 고등학교가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돼 일본고교야구연맹으로부터 특별 승인을 받고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 첫 공식 경기 결과는 0-34. 말 그대로 대패였다.

교토국제고는 지난 2004년 현재 명칭으로 교명을 바꾸면서 학교교육법상 일반 고교로 승인을 받았고, 이후부터 재일한국인 뿐만 아니라 일본 국적 학생들도 입학할 수 있게 됐다. 2008년에 이 학교 출신 신성현(현 두산 2군 전력분석원)이 일본프로야구 히로시마 도요 카프의 지명을 받아 프로 무대에 진출한 것을 계기로 자이니치(재일한국인)와 일본인을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야구 선수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래도 교토는 고교야구 강자들이 몰려 있는 지역이다 보니 '꿈의 무대'로 불리는 고시엔 무대에서 한참 뒤인 2021년에야 두각(4강)을 나타낼 수 있었다.

여름 고시엔은 특별하다. 이 대회에서 탈락하면 3학년 학생들은 더 이상 공식 대회에 나서지 않는 게 관례다. 이



교토국제고가 23일 고시엔구장에서 열린 아오모리야마다고와의 전국 고교야구선수권 준결승에서 3-2로 이겼다.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는 창단 후 처음 결승에 진출했다. [교도통신-연합뉴스]

일본 스포츠 저널리스트 특별기고 2004년 이후 일본 학생들도 입학 열악한 훈련 환경 딛고 결승 진출 양국관계 특수성에도 현지는 호평

를 '은퇴'라 표현한다. 때문에 일본 고교야구 선수들은 여름 대회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연습하고, 비장한 각오로 경기에 임한다. 의미가 큰 대회다 보니 주최사인 아사히 신문 뿐만 아니라 요미우리 신문이나 마이니치 신문 등 경쟁지들도 대회 기간 중 취재기자를 고시엔 구장에 파견해 주요 소식을 보도한다.

선수들 또한 고시엔 대회에 참여하는 게 영광이다. 교토국제고가 속한 교토 예선의 경우 총 73개 팀이 출전했는

데, 본선 출전권은 단 한 장 뿐이었다. 고시엔 구장을 밟은 교토국제고는 지역 예선에서 일찌감치 탈락한 72개 팀의 염원과 함께 하며 이번 대회에 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진 것처럼 교토국제고의 교가는 한국이다. 지난 2021년에 고시엔 본선 무대에 처음 나섰을 때도 한국인 선수들과 일본인 선수들이 한 목소리로 한국어 교가를 부르는 장면이 화제가 됐다. 일본 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은 호감도, 반감도 갖지 않고 해당 학교의 역사이자 전통으로 받아들인다.

한일 관계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교토국제고 선수들의 경기 스타일과

관련이 있다. 일본 고교야구를 즐기는 팬들은 선수들의 매너나 경기에 임하는 태도를 유심히 본다. 교토국제고는 선수들의 스포츠맨십이 남다른 뿐만 아니라 경기 분위기도 박진감과 긴장감이 넘쳐 호평을 받는다. 일본 고교야구는 통상적으로 한 경기를 치르는데 2시간 정도 걸리지만, 이번 대회는 극심한 무더위로 인해 진행 시간이 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반면 교토국제고가 결승에 오르기까지 치른 5경기의 평균 소요시간은 1시간54분에 불과했다. 두 왼손 투수 나카자키 류이(中崎 琉生)와 니시무라 이키(西村一毅)의 제구력이 좋고 수비도 탄탄하기 때문에 경기 시간이 짧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안타는 중장거리보다는 단타 위주다. 5경기에서 기록한 57개의

안타 중 2루타 이상은 8개 뿐이었다. 홈런 한방으로 끝내는 대신 안타를 끊임 없이 연결해 팀 전체가 함께 득점을 생산하는 야구다.

이런 방식의 야구는 교토국제고의 열악한 훈련 환경과 맞닿아 있다. 교내 야구 훈련장은 흙 플레이어를 기준으로 왼쪽 끝이 70m, 오른쪽 끝이 60m에 불과한 미니 구장이다. 하지만 고마키 노리즈구(小牧憲継) 교토국제고 감독은 환경을 탓하는 대신 이에 적응하는 훈련 방식으로 선수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타격 훈련을 마음껏 하지 못하는 대신 수비 훈련에 심혈을 기울였고, 타격도 높고 멀리 치기보단 낮고 강한 타구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집중했다. 이러한 훈련의 성과가 특유의 '탈레이 단타 야구'로 나타났다.

일본의 야구 선수들은 자신이 원하는 야구를 할 수 있다면 한국인이 세운 학교여도, 교가가 한국이라도 개의치 않는다. 교토국제고 야구부 선수들의 대부분은 일본인이지만, 한국 민족학교에서 공부와 야구를 배운 이들이 언젠가 미래의 한일관계를 이끌 지도자로 성장할 가능성은 활짝 열려 있다.

교토국제고는 이제 한 걸음만 더 내딛으면 여름 고시엔의 정상에 밟을 수 있다. 일본 야구문화의 근원이라 불리는 고시엔 무대에서 교토국제고 선수들이 패거리를 이룰 수 있다면 한일간 이해가 더 깊어지는 계기로 작용하지 않을까. 정상까지 한 걸음만을 남겨둔 교토국제고 선수들의 건투를 빈다.

오시마 히로시 일본 스포츠 저널리스트

버디 놓치자 그린에 화풀이... 김주형, 뒤늦게 사과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서 활약 중인 김주형(22)이 대회 도중 그린을 훼손했다가 뒤늦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주형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난 19일 열린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1차전 페덱스 세인트루드 챔피언십 4라운드 경기 도중 그린을 훼손한 것에 대한 사과글을 올렸다.

김주형은 이날 12번 홀(파4)에서 퍼트를 한 뒤 화가 난 듯 퍼터로 그린을 내리찍었다. 당시 그는 두번째 샷만에 온그린에 성공한 뒤 약 1.5m 거리에서 버디 기회를 맞았는데 이 퍼트가 홀을 지나쳐 퍼터로 그린을 내리친 것이

다. 김주형은 그린이 움푹 파였는데도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왔다.

이 장면을 지켜본 많은 골프팬은 "매너 없는 행동"이라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그린을 손상한 뒤 수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떠난 건 다른 동료 선수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그린 수리를 직접 하지 않고 캐디에게 미룬 점도 비난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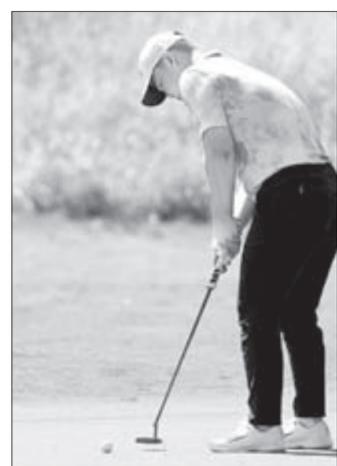
미국의 골프위크는 "골프계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다. 특히 프로골퍼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무례함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장면은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전세계 골프팬에게 퍼졌다. 일부 팬들은 과거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의 행동을 들먹이며 비슷한 경우라고 비난했다. 가르시아는 지난 2019년 유럽프로골프투어(현 DP월드투어) 사우디 인터내셔널에서 3라운드 경기가 끝난 뒤 실격당했다. 가르시아는 이 경기에서 무려 5개 홀의 그린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실격됐다. 당시 대회 조직위원회는 골프규칙 1조 2항 '선수 수는 타인을 배려하고 코스를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가르시아를 실격시켰다.

김주형은 파문이 확산하자 "내가 그린을 크게 훼손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만약 알았다면 그냥 떠나지 않고 손상된 부분을 수리했을 것"이라면서도 "분명히 내 행동은 잘못됐다.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내게 있다. 다시 한번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주형은 세인트루드 챔피언십 막판 3개 홀에서 5타를 까먹는 끝에 합계 1언더파 공동 50위로 대회를 마쳤다. 페덱스컵 랭킹이 51위로 떨어지면서 올해 PGA투어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잔여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고봉준 기자



페덱스 세인트루드 챔피언십에서 퍼트하는 김주형. 그는 퍼터로 그린을 내리쳐 잔디를 훼손했다가 뒤늦게 사과했다. [AFP-연합뉴스]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리얼티 원 부동산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후원 투자 리스팅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자재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 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p>SOLD</p> <p>Bowie</p> <p>\$645,000 싱글홈, 방4, 차고2</p>	<p>UNDER CONTRACT</p> <p>Edgewater</p> <p>\$575,000 싱글홈, 방3, 차2, 0.45에이커</p>	<p>SOLD</p> <p>Rockville</p> <p>\$280,000 콘도</p>	<p>COMING SOON</p> <p>Perry Hall</p> <p>싱글홈, 방3, 차2</p>	<p>UNDER CONTRACT</p> <p>Elkridge</p> <p>\$559,000 타운홈, 방4, 차3, 차고2</p>
<p>UNDER CONTRACT</p> <p>Elkridge</p> <p>\$950,000 싱글홈, 방5, 차3.5, 차고2</p>	<p>UNDER CONTRACT</p> <p>Ellicott City</p> <p>55+ Luxury \$425,000 콘도, 방2, 차2, 1,438sf</p>	<p>UNDER CONTRACT</p> <p>Ellicott City</p> <p>\$475,000 타운홈, 방2, 차2.5, 차고1</p>	<p>COMING SOON</p> <p>Rockville</p> <p>싱글홈, 방5, 차2, 차고2</p>	<p>SOLD</p> <p>Cockeysville</p> <p>\$470,000 싱글홈, 방4, 차2.5</p>

租金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p>RENTED</p> <p>Sliver Spring</p> <p>월 \$3,500 타운홈</p>	<p>RENTED</p> <p>Germantown</p> <p>월 \$2,100 콘도</p>	<p>RENTED</p> <p>Hanover</p> <p>월 \$2,650 타운홈</p>	<p>RENTED</p> <p>Germantown</p> <p>월 \$2,000 타운홈</p>	<p>RENTED</p> <p>Glen Burnie</p> <p>월 \$1,750 콘도</p>
---	---	---	--	--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멀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4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옹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필레이 THE SIXTH SENSE **식스센스** 금주의주제 서비스



이상진
국종욱
고리타
방수석
스티븐민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합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

8월
구
인
광
고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화
240-316-1823

사업체 매매

이준식 부동산

1. Seafood Carry Out
2. Pickup Store(bowie) \$30,000
3. Single House Rent \$3,200 (Catonsville).방4, 화장+1/2

문의
301-768-1240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 풀타임 & 파트타임
-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 이중언어 우대
-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구인

ENI DIST, INC 사무직
Columbia, MD 위치

- ◎ 구매부 0명
- ◎ 영업지원팀 0명

ERP/Excel 경험자우대

이력서: eni@enidist.com
문의
301-477-4710

LO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이런 숲속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컴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라이선스 교육 가능
-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앤틱 한국 수출 관심있는 분

빈티지 & 앤틱 가구, 전축, 차이나셋트, 정원용품 등
1900-1950 년도 까지 물품들 무역, 수출 원하시는 분
고정 거래처 있으며 현재 월 한 컨테이너 (40')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Manassas, VA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8월 26일 월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로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C13



독자가 행복 해진다!!

메릴랜드지역

직원 모집

▶▶MD Montgomery 및 PG County에서 식당장비 세일즈 구합니다. 경쟁력있는 보수 (커미션), PEPCO 등 정부보조프로그램 또는 다른 분야의 대면 방문 세일즈 경험자, 경력자 우대 (기본급 및 경비 지원) 초보자 세일즈 트레이닝 및 각종 지원 제공 (Case by Case) edk.tre@gmail.com으로 자기소개와 함께 지원 바랍니다. 571- 332-2101(문자요망)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경험많은 Handyman-Part Time Office관리자 -정육부 관리자*Capitol Heights지역, MD -사무보조: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301)333-2209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트남 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력자 구함. albert@w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롯데플라자 마켓 분사 승원유통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위치: 메릴랜드 재섭(jessup) 1. 승원 물류센터 사무직원 모집 -업무: 사무직원 (서류관리 및 인보이스등) -시간: 주 32~48시간(주 5일 근무 가능) 2. 승원 물류센터 현장 관리자 모집 -업무: 현장 직원 관리 및 입고출고 관리 -시간: 주 48~52시간 -유경력자 우대(물류센터 운영 전반) 접수 방법: 간단한 이력서 작성 이메일 접수 ▶연락처: han97003@lotteplaza.com 240-750-0016 / 물류센터장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병원/한방/덴탈

닥터 오피스에서 full or part time 직원 구함. 락빌/ 콜럼비아

이중언어, 신분에 결격사유 없으신분 문의 301-580-5777

▶▶요양원에서 일하실 풀/파트 타임 입주가능. 경력자우대. 엘리콧시티 240-426-5678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443-621-2625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력자 우대. 속식도 가능. 410-961-3012

1)덴탈랩 경력자 세일즈 구합니다 Germantown/MD 2)성실한 세라미스트 경력자 구합니다 덴탈랩 Germantown/MD 3) CAD/CAM 파트, 테크니션 구함 4)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직원 구함 (풀타임/경력자 우대) 저먼타운 MD 240-477-5683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다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식당/델리

▶▶엘리콧시티 장수 설렁탕에서 새가족을 구합니다 주방/케슈어/경력자 우대 410-750-3333

▶▶볼티모어 지역에서 토보자 사시 & Fried Chicken 파트/풀 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엘리콧시티 Cafe June에서 샌드위치 싸실 분 유무경력자, 풀/파트타임 443-386-0515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301-926-3638 / 301-538-4246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기타

▶▶픽업바느질 하실분(파트타임) / 엘리콧시티 410-926-3200

운전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메커니,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MD 아류델빌 샵센터 근처에 위치한 무궁화메디컬 데이케어에서 풀타임 운전 하실분 구합니다. 443-621-2625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 지휘자 모집 -자격: 성악 전공/지휘 전공 음악 전공(지휘 경력) -서류: 이력서 신상고백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싱글/타운방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교 410-599-1800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룸 방4, 화2.5 차고 2 301-385-3535 (문자요망)

▶▶조용/교통 편리한 워튼 도서관 한 아름 메트로 근처 싱글룸 방 1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301-655-324

▶▶MD 실버스프링 Calverton(교통편리), 싱글룸, 큰방, 욕실, 유포, 인터넷, 가구, 금연, 301-648-2422

▶▶단독주택 이층 큰방/인터넷/가구 완비/냉장고별도/샤워별도/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금연자 240-418-2738

▶▶Ellicott City 가까운 Hanover 지역 지하전체 세룸 240-393-5530

▶▶단독주택 지하방2, 출입문별도, 부엌, 욕실, 거실등, 저먼타운 메릴랜드 (롯데마켓 5분거리) 문자요망 202-985-9191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1. 메릴랜드 자이언트열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571-242-3736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구인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Community Service Clerk (Church): Do clerical assistance for the outreach ministry. Reach out for Mongolian communities for Mongolian communities to find out needs for caring. Do administrative coordination for the community service, food distribution and homeless ministries. Visit locations within Arlington County and its BLS area. 40hrs/week, Tue - Sun. Associate degree in business or equivalency req'd. Send application to Employer & Job location: Arlington Assembly of God at 4501 North Pershing Drive, Arlington, VA 22203

애난데일.시원한 사무실서 파. 풀타임 근무 하실 분. Junpark9@hotmail.com 571-242-3736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력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h123@gmail.com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이력서: KDLHJL@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 신입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 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금 휴가, 건강보험/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이력서 ▶이력서: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력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콧시티, MD)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256-0606

버지니아 지역

탑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롯데플라자마켓 분사인 승원유통에서 그래픽 & 웹디자이너를 구합니다. ■모집부서: 그래픽 디자이너 / 웹 디자이너 ■근무형태: Full Time (Mon.-Fri.: 7:30AM - 5:00PM) ■근무지: 승원 분사 디자인실 (Jessup, MD) chankim@lotteplaza.com으로 Resume와 포트폴리오 첨부

유재신 회계사 애난데일 공인회계사 사무실 경력자우대, Benefit, 영주권스폰서 가능함, 무경력자도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분 이력서: acct.one3@gmail.com

Annandale, VA에 위치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집입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 휴가 등등), 영주권스폰서 가능 Email: acct.one3@gmail.com

Wanted Sales/Marketing. YI design factory, LLC 443-240-5114

건강 용품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키징/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ceo@ham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트타임 / 풀타임 직원모집 학생및 유/무 경력자 환영, 컴퓨터/영어가 능자, 취업비자/ 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 annandalecpa22@gmail.com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 경험필수 -1년이상 회계업무 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 통역 메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정부계약 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약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업 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다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콘도 4채 매매 렌트수입 증음!

- 교통 편리한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4,000/m
- 매매가: \$515,000 Cash Only

AGENT 환영
문의
703-244-3453
SERIOUS INQUIRIES ONLY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26일 월요일 중앙일보

JTBC-중앙일보 워싱턴 총국에서 '행정·코디'를 채용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근무조건: 풀타임
-근무내용: 워싱턴 총국 행정, 취재 코디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결정 사유 없는 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접수처: kim.hyounggu@joongang.co.kr
thkang@joongang.co.kr
phil9@jtbc.co.kr

버지니아 한의과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마사지사 구합니다.
- 타이슨스 코너 5분거리
-풀타임/파트타임 가능
▶571-243-4251
센터빌, 찬들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급, 센터빌/찬들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시/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x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워싱턴 데이케어에서 일하실분 구함.
-데이케어 직원 / 주방보조 / 간병사(남,여)
703-850-1100/703-963-1234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 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식품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텀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포 인터내셔널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우드브릿지 지구촌마켓 한식코너
파트타임 캐쉬어 구함(월, 수요일)
410-961-7376
한식 '알락탕'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마이애미) 지역 숙소 완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필드 몰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알링턴의 Gute Leute 커피샵에서 커피에
대한 열정을 가진 바리스타를 모집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들도 환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
요.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도 환영
합니다.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헌돈 H-마트 인 민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미국 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험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합니다)
571-365-8303

식당/델리/제과

▶▶Honest Grill 에서 파트타임
Host/Hostess 구합니다.
영어 필수.
703 - 543 - 2320

▶▶텍사스도넛센터빌 베이커보조구함(아간)
영주권 스폰서 가능
703-462-4349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이·미용/네일/마사지

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
금,토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찬들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찬들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셔니스트
구함(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풀/파트타임 이발사구함.
703-408-1119

세탁/엘터레이션

▶▶세탁소공장에서 카운터, 베킹, 프레스,
빨래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픽업 스토어에서 필요물품가게 크로즈로
판매. (컴퓨터, 엘터레이션 장비등 일체)
571-224-7777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 지역 세탁소 픽업스톨에서 파
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 하실 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자동차 정비/바디샵

▶▶자동차 정비 매케닉 구함.
Alexandria, VA (문자요망)
703-887-5355

찬들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 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
클리닝)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703-678-1749

Office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
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ccdc.edu
www.ccdc.edu

기타 구인/구직

버크 태권도 사범 구합니다 풀타임 \$50,000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문자요망)

▶▶노임 전문 변호사 구함
체불임금 80만불 받아내면 50%씩
나눠 가지기로 합니다.

Looking for a lawyer specializing in
labor. If we receive \$800,000 in unpaid
wages, we will split 50% each.
▶Glimck2@gmail.com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571-549-6789

홈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
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교육자
전공자 &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 (풀/파
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집안일 도움주시고 운전 가능하신분 구합니
다. 월-금, 오후 3PM-7PM
센터빌 롯데 부근입니다.
703 300 1048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훔알아서해주시분
(703) 473 6022.

버지니아에 있는 꽃집에서 디자이너와
헬퍼를 구합니다. 유, 무 경력자 환영
240-393-2773

각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파트타임 구함. 이중언어 되시는 분
은퇴하신 남녀노소 환영.
703-424-8596

필그림유치원 교사 모집
토들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애난데일 인쇄회사 풀 / 파트타임 구함.
컴퓨터관리 / 고객마케팅관리 하실분.
신분 무. 재택 NO
E-mail : newsunny77@gmail.com
571-242-3736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입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력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240-903-0777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싱글홈 지하 렌트 워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킴, 단독샤워, 와슈어,
66번가 가까운 페어팩스, 지하 출입문 별도
▶703-489-6926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페어팩스 싱글홈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싱글홈 렌트 \$3,500
▶703-231-5572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5.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스프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2, 화장실2, 주인 잔디관리, 전세 마루.
703-403-7757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교 좋음)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3개, 화4개, 2가 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홈(차고 두개 짜리) 사고저하는
분 연락주세요.
연락전화: 571-277-7758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군 \$3,300
571-567-5797

콘도 렌트

▶▶애난데일 콘도 방2 화장실2,
밝고 넓은 리빙룸. 큰방2, 나무마루,
엘리베이터. \$1,900(물값과 가스비 포함되
어있음). H-Mart 가까이, 교통편리.
703-477-3114.

▶▶애난데일 H MART 옆 콘도렌트
\$2,300 방3개 화장실2, 유포.
전기만 별도 9월말 입주 가능
▶방1/욕실 화장실/인터넷/유포/\$800
703-350-1986

센터빌 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까이, 전용주차장 2대, \$2,200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방 렌트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리커 | 식당 | 카워시 | DC 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즈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하여 매매 가격 산정
2. 정확한 매물 상황과 매매 조건 유동성
3.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 고용
20년 경력으로 남보다 2배 더 뛰는
케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CoStar GROUP POWER BROKER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8월 26일 월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센터빌타운하우스 2층 작은 방
여학생 환경. 유포 \$800
▶703-489-6926

▶▶센터빌 방/욕실/화장실 1 세놓음
문자 또는 전화주세요!
703-470-5655

▶▶Annandale 방 렌트: townhouse
밝고조용한 뒷방 or walkout
basement with a private bathroom,
마루, 유포함, 교통편리함 여자분 원함.
문자보내주세요.
571-345-8879

▶▶아난데일 노바 3분거리.
조지메이슨 대학 5분거리, 반지하
출입문 별도. 즉시 입주가능.
703-598-6087

▶▶1. 아난데일 한강식당뒤 개인집방 렌트
화장실/입구별도 9/1일 입주가능
2. 타이슨지역 개인집 지하방
703-395-4380

▶▶첼러리타운하우스 반지하 워아웃
인테리어, 가구, 가전, 주방일체포함 \$900
즉시 입주 가능 문자요망
571-429-2222

▶▶열린문 교회 근처
싱글하우스방 세놓음 남자분 환영
703-344-6273

▶▶조지메이슨 노바 5분거리
반지하\$900/부엌/화장실/출입문 별도/
마루바닥/유리리프트포함/문자요망
703-598-6087

단독주택 지하방1, 욕실, 세탁기, 거실, 인터
넷, rt 50, Parkway 286, H mart 10분 거리,
롯데, Fair Oaks mall, Inova 병원 옆
703-236-0834

Fairfax VA 비엔나전철역 근처 66도로495도
로 2분거리 직장인 환영
703-419-0337

▶▶싱글룸 지하렌트
조지메이슨 근처
워아웃, 방2, 거실, 화장실,
풀키친, 워셔드라이어
703-898-3838

Burke H-Mart 10분거리 2층타운홈 취사,
가구 즉시 입주 가능 방 1 \$600 방 2 \$1000
여자분 한함/문자바람
703-678-7833

▶▶아난데일 예촌근처 반지하 전체
방1/ 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 입주가능 문자요망
703-629-6275

아난데일 메사아장로교회뒤 지하방/유포
703-887-5173

개인 샤워실, 키친, 냉장고, 침대,
개인 주차자라도 있습니다.
571-232-6052

애난데일 지역 싱글룸, 방1개 렌트
▶703-470-5238

단독주택 출입문 별도.
지하방2 부엌 거실 욕실등(문자요망)
202-985-9191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 문자주세요)

부동산 매매

사업체 매매

콘도렌트 \$1,900 Springfield 아난데일 10
분 거리, 방 2, 화장실 1, 세탁기, 건조기
나무 마루, 깨끗한 화장실, 넓은 리빙룸,
큰 발코니 파킹 3개 충분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집.
▶703-477-3114

1.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룸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
한 단독주택, 방4, 화4, 편리한 렘블러스타일
2.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½, 1,612s.f., 교통편
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제외한 렌트 수입 \$4,000/m
- 매매가 \$515,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Agent 환영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사립물,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카웃 베이스먼트
- 3.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car 거라지
- 4.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스프링필드 공영원 좋은 위치 싱글룸
워룸 방3개, 화1개, 부엌, 리빙룸, 다이닝 /
아래층 방2개, 사무실, 화2개, 현관 리빙룸 /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자세한 사항 문의)

부동산/상업용 매매

▶▶앤지부동산 파고, 사고자 하시는분
이익 창출위해 함께 고민해드립니다
571-550-7658

▶▶리커 | 식당 | 카페 | DC건물 | 호텔
현재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즈니스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I.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II. 정확한 매물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해야 합니다
III.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 뛰어난
캐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Seafood 매매 Woodbridge VA
\$165,000, Open: Mon-Sat (6일 근무)
자기사업에 관심있는 분 연락주세요!
703-967-3963

이준식 부동산
1.seafood carry out
2.pickup store(bowie) \$30,000.
3.single house rent(Catonsville)
\$3,200. 방4 화3,1/2
▶703-768-1240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립물,
1,500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성업중인 미국 당구 스포츠 바 매매/리스
메릴랜드 로럴 포트미드 베이스 앞
13,000 SF, 28 당구대 완비
경험 많은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DC, 리워 비즈니스 매매 \$190,000
연매상: \$598,000/6일근무/전체 2400/SF
1.2층, B1(공간활용 가능)
▶571-242-3736 (연락주세요)

기타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 40년 경력
▶703-569-80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세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장소: 버크레이크 헬터 / ·시간: 일 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 워킹 클럽
▶703-939-5223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 장기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으로
돌봐 드립니다.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 (예촌 2분거
리), MD 타주 분들도 환영! 직접 방문 확인!
▶571-278-8811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703-678-6639

신선한 야채 배추, 무, 갓, 알타리무를 농장 가
격으로 공급합니다. 신속 정확하게 공급합니
다. 교회, 식당 환영
240-796-0093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광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피맛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터, DMV, 등...
차 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중고품/기타매매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무빙세일 역 이민 가구 및 생활용품을 정리.
냉동고, 컴퓨터, 옷장, 히터, 서랍장 외...
703-203-5177(3시 이후 전화요망)

건축/페인트/마루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텍,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송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HD Plus Construction
밀웍샵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록젝 매니저(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페인팅(In, Out), 텍 메인터넌스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디맨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손사이드 / 메케닉 크루
703-955-2827 / 540-680-1571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모든공사, 추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 에셋 워싱턴 한인 전문 용자회사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대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테리어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달러,
덕트, 드라이어벤트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
비, 캐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쥘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골든벨라보석(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
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앨리콧시티, MD)

카펫, 에어덕트 클리닝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스티프삼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시, 파워폴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세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체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달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을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이
삿짐 포장이사, 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밍/전등/항등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571-229-4633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앨런)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703-855-3565

유리

JK유리 & Window
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임업/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올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구독: 703-281-9660,1

생활안내 703-281-9660,1(문자)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벽,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 욕실·주방 리모델링 전문
- ▶ 마루·텍·케비넷 샌딩 보수
- ▶ 타일·목수·HoA 지적 신속 수리
- ▶ 핸디맨·플로잉 서비스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KOREA(BUSAN)	USA(LOS ANGELES)	USA(SAN FRANCISCO)
02-2083-2083	051-469-4191	310-767-5699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Movers LLC

Movers LLC
GOOD HAND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무역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럭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크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블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Luxury Vinyl Tile)
- VCT(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올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올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get in on (something); (다른 사람들의 계획 등에) 함께 참여하다

(Erica and Tom are talking before Tom goes to work ...)

(툼이 출근 전에 에리카와 얘기한다...)

Erica: Don't forget we're getting together with Hugh and Mary tonight.

에리카: 오늘 저녁 휴하고 매리와 만나는 것 잊지마.

Tom: Oh I almost forgot. When is it?

툼: 아 잊어버릴 뻔했네. 언제지?

Erica: At eight-thirty. I should have known you'd forget.

에리카: 8시30분. 당신이 잊을 거라는 걸 내가 생각했어 야하는데.

Tom: I won't be home until 8:00 but we should be able

to meet them.

툼: 8시 전까지 집에 못오지만 시간 맞춰 나갈 수 있을 거야.

Erica: You won't have much time to catch your breath, will you?

에리카: 숨들릴 여유도 별로 없겠군 안그래?

Tom: We're just having a drink with them, aren't we?

툼: 한잔 마시러 가는 거잖아, 안그래?

Erica: Not really. Mary specifically said it was a business meeting.

에리카: 아니, 매리가 정확히 사업상 회의라고 했어.

Tom: No kidding.

툼: 말도 안돼.

Erica: She didn't say but I think they've gotten into a business.

에리카: 말은 안했는데 내 생각엔 사업을 시작한 것 같아.

Tom: They probably want us to get in on it with them.

툼: 아마 사업에 같이 뛰어들자고 하겠군.

기억할만한 표현

▶ get together: 만나다

"Let's get together for lunch tomorrow." (내일 점심 같이 먹자.)

▶ catch your breath: 숨을 고르다. 돌리다 잠시 쉬다
"Sit down and catch your breath because you're working too hard." (자네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니깐 좀 앉아서 숨 좀 돌려.)

▶ get into (something): ~에 흥미를 붙이다
"He got into yoga and lost a lot of weight." (그 사람은 요가에 흥미를 붙여 체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가로열쇠

(3)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적어 기록한 책 (5)하늘에서 떨어지는 얼음덩이 (6)매우 속을 태우며 조금씩 볶아치는 일. 아이는 빨리 집에 가자고 ~이다 (9)남편의 누나나 여동생 (10)어린이를 덮어 주거나 업을 때 쓰는 작은 이불 (12)혼자서 노래를 부름 (13)불순물이나 지방 따위를 제거하고 소독한 솜 (15)꺼어진 거울. 부부가 헤어지는 일 (16)혼인한 두 집안의 부모들 사이 (17)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 (19)녹두로 쏜 묵. 녹두꽃이 떨어지면 ~ 장수 울고 간다 (21)중년이 넘은 아내를 허물없이 이르는 말 (23)돈이나 물건 따위를 빌려주거나 빌림. 주먹 자금을 ~하다 (24)기력이 허하여 눈앞에 있지 않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 (26)나를 낳아 준 분. ~라고 부르며 웬지 눈물이 난다/가슴이 미어지고 심장이 맞는 것 같다(김갑주) (27)달아나는 토끼의 기세. 매우 재빠른 동작 (30)밤이 충분히 익어서 저절로 떨어질 정도가 된 상태. 밤송이가 저 혼자 ~이 떨어져 떨어져 내렸다 (31)이름을 써서 문에 내걸죠. 이삿날 준비해 둔 ~ 달고 흘린 눈물/날마다 가족 위

해 보조 서사된 이름 석 자/~는 그대로 두시고 이사가신 아버지(최현주)

세로열쇠

(1)어린이의 얼굴 (2)하얗게 차려입은 옷 (4)김치나 깍두기 따위를 담은 반찬 그릇 (5)쇠귀에 경 읽기. 아무리 가르치고 알려 주어도 알아 듣지 못한 (7)소나 말이 끄는 짐수레 (8)한 달 조금 넘는 동안. 기침으로 콧물거린 지가 벌써 ~가 넘었다 (11)한옥에서, 몸체의 방과 방 사이에 있는 큰 마루 (13)달이 빠짐 (14)결혼식 때에 신부가 머리에 쓰죠 (15)무명이나 용 따위로 된 잠옷 (18)도둑이나 죄인을 묶을 때에 쓰던, 붉고 굵은 줄. 옥졸들은 능란한 솜씨로 두 사람한테 ~를 지웠다 (19)쪽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쪽보다 더 푸름. 제자나 후배가 스승이나 선배보다 나음. ~이라더니, 이젠 네 글솜씨가 선생보다 낫구나 (20)부어서 깨소금을 만들거나 찹기름을 짜죠 (22)술 바닥에 붙어붙은 밥 (24)결혼식을 마치고 신혼부부가 함께 가는 여행. 밀월여행 (25)산, 언덕, 길 따위가 한쪽으로 기울어곳 (28)본디부터 그곳에서 나는 종자. (29)생물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

스도쿠

6			3			1	2	9
7	1		6	4	2			5
	2	3	8			4		
1		7				2	5	
		5		1	9			
				8	7		4	
8			9	5		7		2
9	7	4					8	6
2	5		7			3		



자료제공 = 울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4	6	8	8	9	7	1	5	2
9	8	5	3	2	1	4	7	6
2	1	7	4	5	6	9	3	8
1	4	6	7	8	5	2	9	3
3	7	9	6	1	2	5	8	4
8	5	2	9	3	4	7	6	1
7	6	4	1	9	8	3	2	5
5	3	8	2	4	9	6	1	7
6	2	1	5	7	3	8	4	9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뒷면 3자리 EXP. DATE: / month year CVS: <input type="checkbox"/>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애틀랜타 **일본식당 구인**
 *데빵 셰프 0명
 *스시 셰프 0명
 유경험자
 침식제공(겉에서 출퇴근 거리)
 알라바마 관광지역
 T.251-968-2525
 256-653-1970

구인

Sales Manager:
 Direct sales activities:
 Bachelor's in Business
 Admin. or related req'd.
 40hrs/wk; Apply to
MOORIM USA, INC.,
 3700 Crestwood Pkwy NW,
 Ste 200, Duluth, GA 30096

기타 지역

구인

주방장
 숙식제공, 조지아주 지역
 (646)229-2708

이민생활의 나침반
 중앙일보 안내광고
 (213)368-2525

Hello Town
 미국 생활에 대한
 고질적인 리얼리티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까지
 All about US Life!

RENT
 렌트
 부동산

미국 라이프 모든 것
 자동차

전문업체
 문의 213.368.2525

us.srotech.com
charcoal cedar 친환경탄소복합소재
건식온돌 난방
진짜가 나타났다
 전통온돌의 우수성을
 재현한 조립식
 구들장입니다.

너무나 쉬운 설치
시공 영상
 시청하세요~
ussrotech.com
 *지사 및 대리점 모집
 문의 510-381-0301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박혁박사(하위트리)

개인 / 비지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지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험드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오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80~90대 · 비아그라 효과 없는 남성도 30분 전에
1알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강직도 · 지구력 단번에 해결, 만성 발기부전,
 전립선비대증, 고혈압, 통풍, 근본 원인 치료
 남성용 1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즉효성 남성 발기제
 & 남녀공용 성욕 강화제 유효유
1-213-210-9720/papaaaa.com

Partial & Denture
플타임
 N.캐롤라이나주 샬럿 지역
704.806.3068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에서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미라클러치라 살매
최종상상
 Up to 40%
 핫상세 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흥세인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건강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 · 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러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러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중풍 ·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히스패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제 웃을 수 있어요"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성민산삼한방병원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환자와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왼쪽, 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희노씨]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전립선
온열치료기 J2V-N
www.j2v.co.kr
전립선암 예방 및 치료 효과
***30일 전액 환불제 실시**

- 가정에서 간편하고 편안하게 경제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 특허청 100대 우수특허대상 (생명공학 부문) 수상
- 경화되고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체를 정상상태로 회복시켜 줍니다.
- 야뇨, 잔뇨, 빈뇨 증상에 특히 효과적 입니다.
- 약물치료로 효과보지 못하신 분
- J2V 전립선치료기는 안전한 물리적 치료방법으로 부작용이 없습니다.

신제품
전립선 온열치료기 새롭게 나왔습니다.
치료기능 향상 | 충전량 표시 | 약정화면 향상

드림바이오메디칼 (714)926-4607 7011 Warner Ave #E Huntington Beach CA 92647

당뇨환자와 다이어트에 희소식!
칼로리를 내리는 날씬한 저당밥
40% ~ 49% 탄수화물 DOWN

탄수화물은 낮추고 내 몸을 건강하게
당뇨와 다이어트에 좋은 저당밥을 SALE
banustory.com | 213.800.5749

1세대 저당 밥솥
New 2세대 스테인리스 304 내솥 직접가열식

독점 FAIRFAX 타운홈

4층 구조 엘리베이터 시설,
2 Car Garage, 방4, 화장실 5
2013년 새로지은 럭셔리타운홈,
골프코스 전경 **\$1,335,000**



Contract

독점 FAIRFAX 타운홈

방3, 화 2½, 업데이트된 부엌,
밝고 환한집, 새페인트, 나무마루,
NEW DECK, 워아웃베이스먼트 **\$600,000**



Contract

독점 ANNANDALE 콘도

완전히 리모델링한 넓고 환하고
깨끗하고 예쁜집, 방3, 화1/1. **\$375,000**



Contract

독점 Woodbridge 타운홈

방3, 화3, 2 Car Garage,
End Unit, Update Kitchen,
새 페인트, 밝고 환한집 **\$549,900**



Contract

독점 RESTON 타운홈

리모델링한 넓은 텍과 아주 환한
깨끗하고 예쁜집, 방3, 화1/1. **\$479,900**



Contract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